[2012 통일부 신진연구자 정책과제]

북한무역회사에 관한 연구
: 북중 접경도시 '신의주'를 중심으로

성 명: 정은이
현재 소속: 경상대학교

제1장 서 론 ····· 4
제2장 북한무역회사의 성격 및 구조 ····· 5
제3장 북한 무역회사의 이윤 배분 구조 ····· 15
제4장 북한무역회사의 파급효과 ····· 32
제5장 결론 ····· 47
그림 1 북한 무역회사의 구조 ····· 14
지도 1 신의주시 시가지 ····· 3
표 1 북한 무역회사 ····· 7
표 2 북한 무역회사의 주체 ····· 8
표 3 북중 변경무역의 10대 세관 ····· 12
표 4 주요 공장 기업소들의 조업 연대 ····· 35
사진 1 위성자료를 통해서 본 신의주시와 단동시 ····· 2
사진 2 단동 세관 앞 ····· 16
사진 3· 단동 세관 주변: 교통체증 ····· 16
사진 4 용천기계상사 ····· 19
사진 5 용천상사 ····· 19
사진 6 신리여우 상점 ····· 19
사진 7 신리여우 상점 내부: 한국 화장품 코너 ····· 19
사진 8 진하이 바오산 도매상점 ····· 19
사진 9·진하이 바오산 도매상점 내부 ····· 19
사진 10 신의주시 세관 근처 무역회사 창고들 ····· 21
사진 11 신의주시 무역회사 ····· 22
사진 12·신의주시 무역회사 근처 5톤급 냉동 창고 ····· 23
사진 13 평성시장 옆에 위치한 광장 버스 터미널 ····· 36
사진 14 함경북도 무산시장 ····· 39
사진 15 평안남도 평성시장 ····· 40
사진 16 평안북도 신의주 채하시장 ····· 40
사진 17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시장 ····· 41
[탈북자 인터뷰 조사명부] ····· 49
[참고 문헌] ····· 50

요약문

이 연구는 북중 접경도시 신의주시에 대한 미시적 접근을 통해 북한 무역회사의 구조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외화벌이 실태, 나아가 북한경제구조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가 활용한 연구방법으로는 위성자료, 공간문헌자료, 탈북자인터뷰조사, 북한내부영상자료를 활용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이 연구에서는 북·중 접경조사를 하여 이러한 자료들을 상호 교차분석·검증하여 각각의 자료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보충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북한과 무역을 하고 있는 중국 단동의 무역회사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역으로 북한 무역회사의 실태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북한화교, 조선족, 한족에 대한 심층인터뷰조사를 실시하여 북한 무역회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북중 무역에 대한 거시적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무역회사는 기본적으로 외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기업형태라는 점에서 상사 또는 무역회사와 유사하지만 내각뿐만 아니라 주로 당, 군부, 내각 등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점, 특히 당, 내각, 군, 안전부, 주요 도급 기관 및 기타 주요 '특권기관'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 생산기지(공장), 원천기지(수산물, 약초 등) 등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상품의 유통뿐만 아니라 생산의 기능까지도 겸비하고 있는 생산경제단위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점 수출할 수 있는'와크'를 할당받지 못하면 무역권한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반 무역회사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무역회사는 1990년대 식량 배급체계의 붕괴이후 북한의 모든 기관에서 행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수출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식량, 생필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게 되었다. 초기 무역회사들은 식량과 생필품을 날라다 상부기관에서 내린 지령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각 도에 있는 무역회사 지사에 상품이 집중되면서 각 지사에는 무역회사 소속 물류창고가 생기고, 거기서 물자교류시장이 생겨났다. 전국의 돈주들이 무역회사 물류창고로 몰려들어 물건을 대량으로 도매해갔기 때문이다. 이 상품들은 전국 각 시장의 거간에 넘겨지고 거간은 다시 시장 상인들에게 소매로 넘기면서 소비재시장이 확대·팽창되었다. 즉 무역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외화벌이가 활발해 질수록, 물류가 국내로 대량 유입될수록, 거래가 활성화되고 소비재 시장의 규모도 커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무역회사가 각 지역에 판매소(지사)를 설치하여 상품을 직접 도매로 유통하면서 외화상점체계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는 수입상품이 판매소를 거쳐 전국의 종합시장으로 유통되는 경로(channel)로 확대, 발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역을 통해 종전에 비해 중국을 통해 옷감 등 원료를 대량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되자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만 해도 북한무역의 주체는 화교, 중국연고자, 중국 상인(조선족) 등 보따리 무역상인이었으며 회령, 무산 등이 시장의 중심도시였으나 점차 시장의 중심이 신의주, 평성으로 옮겨갔다. 1990년대 각각의 무역회사가 물류창고를 각도에 설치하고 판매소의 기능을 하게 되면서 평성시장이 가장 큰 도매시장으로 기능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평성이 1990년대 이후 성장할 수 있었던 동인은 무역회사의

판매소 기능에 있으며 무역회사 배후에는 신의주라는 북중 접경도시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무역회사가 커질수록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암달러 시장이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북한의 경제는 동원, 계획, 시장 메커니즘이 중첩된 외화벌이형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가 내부적으로 상이한 독립적인 경제구획으로 상호 격리 분리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상이한 지배구조와 경제법칙이 작용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는 논리와 상반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경제는 동원, 계획, 시장 메커니즘이 중첩되는 구조로 상호 연계하여 영향을 미치면서 특이한 경제체제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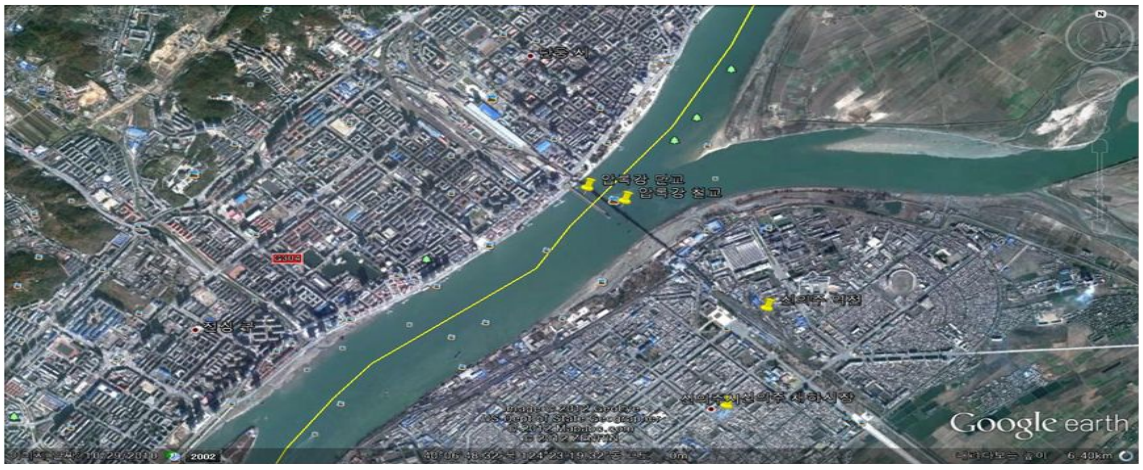
1970년대 중반 김정일이 공식적인 후계자로 등장함과 함께 시작된 '외화벌이'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각 기관에까지 문어발식으로 뻗어 나아가 현재 북한 경제 대부분에 침투되어 북한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북한 경제체제는 오래전부터 반드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작동되는 메커니즘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연구에서 '외화벌이'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북한경제구조를 이해하는 핵심 부문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외화벌이는 '무역회사'를 통해 실현되고 있어 북한 무역회사의 실체와 구조를 밝히는 일은 외화벌이의 실체, 나아가 북한경제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북한 최대의 무역도시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중심으로 미시적 접근을 통해 무역회사의 실체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신의주시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밀무역을 포함하여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 최대의 무역도시'라는 점에 착안하여 중국 단동지역의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신의주시의 무역실태 및 신의주시의 현황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민간차원에서의 북중 무역형태를 고찰하고 미시적 차원에서 북한무역회사의 실체를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북중 무역에서 신의주시가 차지하는 위상 또는 신의주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고찰을 목표로 한다.

특히 북중 무역관계는 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미시적인 측면에서 북중 무역관계를 세심하게 분석해 보면, 무역회사의 실체, 외화벌이의 작동메커니즘을 밝힐 수 있다. 이는 북한에서 외화벌이는 계획경제부문 밖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인 만큼 북한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요소의 하나로 나아가 북·중 접경도시의 특징이 도출될 것을 기대된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 대만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부터는 북·중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경로가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무역회사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시도는 신의주시의 특징, 접경도시 주민들의 삶, 나아가 접경도시의 특징,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더욱이 미시적 수준에서 외화벌이의 실태와 무역회사의 구조가 밝혀지면 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 나아가 다른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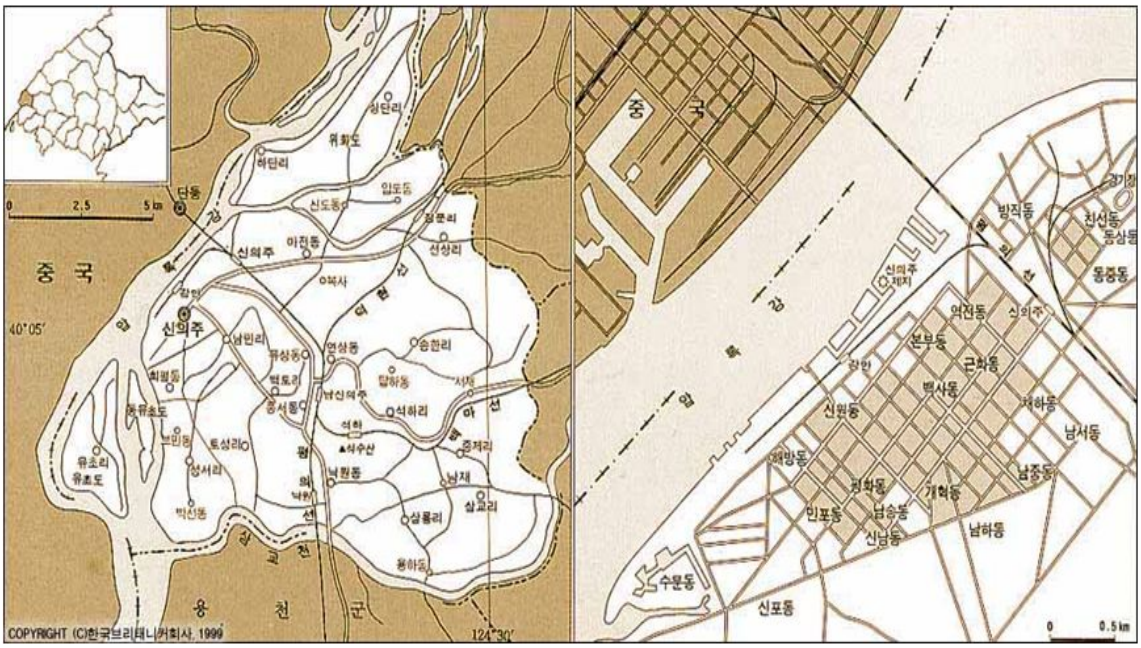
2. 연구범위: 평안북도 신의주시

신의주시를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첫째, 신의주시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중국을 통해서 자료와 정보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이다(사진 1 참조). 즉 이 지역은 북·중 접경지대이므로 사람, 정보, 돈, 물건 등의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쪽에서 관망할 수 있어 연구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신의주시는 평안북도 도소재지인 북한 제 2의 도시로써 사진, 지도, 시가지 등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공개된 자료들이 많다(지도 1 참조). 둘째, 신의주시는 향후 개발도시로서 주요한 의의를 지닌다. 먼저 신의주는 예부터 중국과 왕래가 빈번하고 화교가 살았다. 즉 국제무역도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의주(義州)의 중강에서 열리던 조선과 청나라와의 무역을 일컫는'중강개시(中江開市)'및 의주상인을 일컫는'만상(灣商)'이 존재하였다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1] 또한 신의주시는 평양과 인접한 도시로 중국의 동북지역과 수도 평양을 연결하는 교두보로서 중요한 지점이다. 조선후기에 이미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국제무역통로가 신의주를 중계지로 형성되었던 것을 보아도 신의주시의 지리적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셋째, 신의주시는 평양과의 인접 도시로 평양의 동향을 읽을 수 있는 리트머스와 같은 존재이며 개혁개방의 신호도시이기도 하다. 넷째, 신의주시는 북한의 다른 지역보다 개인상공업이 발달하였다. 현재도 채하시장은 북한 최대의 도매시장이다. 또한 신의주시는 '경공업 도시'로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북한최고 최대 수준으로 중앙급 경공업공장들이 밀집해 있다.



<사진 1> 위성자료를 통해 본 신의주시와 단동시
출처: Google Earth 필자 정은이 검색

1) 1일제 식민지 시기에도 마찬가지이다. 1935년도에 신의주(9.6km², 제방안령역)의 인구는 5만4310명으로서도 인구총수의 4.6%였고, 주민의 민족별 구성을 보면 조선사람이 71.7%, 일본놈이 15.3%, 중국인을 기본으로 하는 외국인이 13%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놈들과 중국인의 비률이 다른 시, 군들에 비하여 많은 것은 신의주시가 당시 일제가 강점하고 있던 만주와 직접 잇닿아 있는 출입문호였다는 것과 관련된다. 446



<지도 1> 신의주 시가지

3.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문헌자료와 더불어 다양한 실증적 자료들을 활용하고 나아가 각 자료에 대한 교차분석(cross-checking)을 통해 자료를 검증, 분석하여 각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보충하고자 한다.

o 심층면접 방법(thick description)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재일탈북자, 북한화교, 재중조선인, 중국한족 등 북한주민과 연계가 있는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심층면접(thick description)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우선 이러한 면접기법을 통하여 필자는 면접 대상자의 북한사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고 나아가 현지인의 시각에서 현지접근이 어려운 북한의 지역문제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세밀하고 총체적으로 북한문제에 접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o 북한 연고자(緣故者) 활용법

'연고자'는 남한과 북한, 중국과 북한 양측에 離散(이산)되어 북한 측의 가족 등을 부양하는 상황인 일종의 디아포라스(Diaspora)로, 이들은 전화 등을 통하여 북한 내외부와 실시간 통신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혈연관계자이다. '연고자활용법'은 연고자가 주체가 되어 북 내부 상황을 조사·분석하는 방법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연고자활용법을 적극 수용하여 이들이 수집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지인의 시각을 북한연구에 적용하여 연구의 정밀도를 높이고자 한다.

o 북·중 접경지대 현지조사(fieldwork)

남북한 주민은 반세기 이상 다른 체제에서 살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남북한 주민은 50년 이상의 단절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괴리와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학에서는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북한을 파악하고 그들의 시각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은 현지조사가 어려운 지역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지역연구자로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방편으로 북·중 접경지대, 그 중에서도 중국단동지역을 현지조사지로 선택하고자 한다. 단동에는 우선 한국 식당, 조선(북한)식당, 조선족 식당, 중국 한족(漢族)식당, 화교가 운영하는 식당이 혼재해 있어 적어도 5종류의 조선음식 맛을 볼 수 있다. 즉 단동이라는 공간은 남한사람, 북한사람, 조선족, 중국인(한족), 북한 화교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 북한연구자로서 제한적이나마 현지관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공간이다. 더욱이 단동은 중국의 대북

한 변경무역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북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인, 중국인, 북한, 화교 및 재중조선인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북한과 관련된 정보, 물건, 돈,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o 영상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영상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북·중 접경지대에서 활동하는 탈북자 지원 NGO·NPO, 저널리스트 및 세계 각국의 방송사들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현지인이 직접 북한내부를 촬영한 녹화물이다. 연구자는 이들 단체들이 취재원 등의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입수경로에 대해 공개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자료를 제공받았으므로 자료의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연구자는 이러한 자료를 입수한 단체(개인)와의 면담을 통해 영상이 촬영된 일련의 구체적인 과정, 목적 및 입수경로 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영상자료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연구방법론으로써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북한 내부사정을 가시적(可視的)으로 확인·분석할 수 있어 현지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이 어려운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다. 둘째, 이 영상자료들은 1990년대 말부터 2011년까지 약 15년간에 걸쳐 꾸준히 촬영·수집된 영상물이다. 따라서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을 통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주민들의 삶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가시적으로 관찰하여 기록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가능하다. 셋째, 관측된 과거의 자료들을 분석하여 어떠한 법칙성을 발견해서 이를 모형 화하여 추정하고 이 추정된 모형을 사용하여 미래에 관칙될 값을 예측하게 된다.

o 위성자료 분석

본 연구는 영상자료와 지도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Google Earth 등 공개된 위성사진·지도를 바탕으로 신의주 시의 외형적 변화를 장기간에 걸쳐 관찰·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자는 각 위성자료에 대하여 각 지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그 지역 출신의 탈북자와의 공동 작업을 통하여 재검증 작업을 거쳐 영상자료를 검토함으로써 필자가 연구자로서 현지방문을 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노력하고자 한다.

o 문건자료 분석

- 공간문헌자료: 조선지리전서, 조선관광지도서,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와 공동으로 발간한 '조선향토대백과' 등 공간문헌자료를 이용하였다.

제 2장 북한무역회사의 성격 및 구조

제 1절 북한 무역회사의 성격

‘무역’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2] ‘회사’란 상행위(商行爲)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2인 이상이 설립한 사단법인의 기업형태이다. 따라서 무역회사란 주로 무역하는 기업체를 뜻하는 일종의 ‘상사(商社)’와 유사하다. 북한 무역회사의 경우, 북한 무역법 10조에 따르면 “무역회사는 수출입활동의 담당자이다. 수출입활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영업허가를 받은 무역회사가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외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기업형태라는 점에서 상사 또는 무역회사와 유사하다.[3] 그러나 북한체제의 특수한 점을 감안할 때 북한 무역회사는 일반적인 범주에 해당하는 무역회사와 성격을 달리한다.

첫째, 북한의 무역회사는 내각 뿐만 아니라 주로 당, 군부 등에 소속되어야 한다. 이는 탈북자에 대한 인터뷰조사에 입각하여 KOTRA 편『북한 비즈니스 어떤 회사가 하나 : 해외 대북한 교역기업』, 丹東經濟硏究所 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역 『북한에는 어떤 무역회사가 있나 』 및 통일원 『북한무역상사등 관련기관 일람』 자료에 게재되어 있는 무역회사를 소속 중심으로 조사, 분류한 결과, 북한의 무역회사는 내각 산하, 군부 산하, 당기관 산하 등 주로 3개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었다(표 1 참조).

---

2) 초창기의 무역은 서로의 산물을 교환하는 것에 국한되었으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넓은 뜻의 무역은 단순한 상품의 교환과 같이 보이는 무역(visible trade)뿐만 아니라 기술 및 용역과 같이 보이지 않는 무역(invisible trade) 및 자본의 이동까지도 포함한다(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4932&categoryId=200000171: 검색일 2012.8.10).

3) 이에 관해서는 중국 요녕성 소재 대북무역회사 ‘송상상무유한공사’의 홈페이지 참조(http://www.ssline.co/bbs/board.php?bo_table=tb31&wr_id=15&cate_id=5010: 검색일 2012. 10. 6).

<표 1> 북한 무역회사

당 소속	조선능라888무역회사, 능라도무역회사, 대동강무역회사, 대성무역총회사, 대전 제1무역회사, 대성제 2무역회사 대흥수산무역회사, 동호무역회사, 동흥무역회사, 백송무역회사, 백양무역회사, 삼지연, 삼천리, 삼흥무역회사, 상흥무역회사, 서경무역회사, 송도원무역회사, 송악산무역회사, 양각무역회사, 오석산, 옥류무역회사, 은덕, 은성, 은하기술무역회사, 은하무역총회사, 인풍무역회사, 창성, 청남무역회사, 청봉무역회사,
군부 소속	조선금릉무역회사 조선남강무역회사, 보물무역회사, 봉화무역회사, 부강무역회사, 비단 비철금속, 수양산무역회사 승전무역회사, 압록강무역회사, 연광무역회사, 연봉무역회사, 연풍무역회사, 연봉무역회사, 조선연합무역회사, 오륜 무역회사
내각 소속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조선개서무역회사, 조선건재무역회사, 조선경공업무역회사, 조선경공업품무역회사, 조선경암무역회사, 조선고려무역회사, 조선과일무역회사, 조선광명무역총회사, 광복무역회사 기계무역총회사, 기술수출입회사, 남산무역회사, 농토산품무역회사, 두만강무역회사, 조선마그네시아크링카수출입회사, 만년보건총회사, 신합자회사, 명전의료회사, 목란무역회사, 백무무역회사, 조선변강무역회사, 변경무역회사, 변경양곡무역회사, 복장, 감삭무역회사, 상원무역회사, 석탄무역회사, 선박무역회사, 선반무역회사, 성천강무역회사 수산품무역회사 조선식품, 신흥무역회사, 용악산기계설비수출입회사, 용악산무역회사, 유색급속수출입회사, 임업무역회사, 장미무역회사, 장산무역회사, 장수무역회사, 전기무역회사, 종합설비수입회사, 지능무역회사, 청춘무역회사, 평양출판무역회사, 조선흑색금속수출입회사

출처: KOTRA 편『북한 비즈니스 어떤 회사가 하나 : 해외 대북한 교역기업』, 丹東經濟研究所 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역 『북한에는 어떤 무역회사가 있나 』 및 통일원 『북한무역상사등 관련기관 일람』 이외에 탈북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에 입각하여 필자가 자료를 정리 및 분석하여 표로 분류

<표 2> 북한 무역회사의 주체

소속	무역회사명
39호실 소속	만경무역회사
39호실 소속	묘향무역회사
통일전선부	광명성무역회사
통일전선부	장미무역회사
당 중앙 군수공업부	은덕무역회사
당 중앙 군수공업부	금릉수출입상사
당 중앙 국제부	영광무역회사
당 중앙 국제부	대양무역회사
평야이 당위원회 및 39호실 산하	릉라도무역총회사
39호실	광명성무역총회사
39호실	대성무역총국
금수산기념궁전	능라888무역상사
정무원	남양무역회사
인민보안성	동흥무역회사
경공업성	은하무역총회사
경공업성	평양담배수출입히사
제 2경제위원회	룡악산 무역총회사
인민무력부 소속인 국경경비대 회사	은파산무역회사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비로봉 무역회사
인민무력부	매봉 무역회사
대외봉사총국	옥류무역회사
호위총국	칠성무역회사
국가보위부	신흥무역회사

둘째, 북한의 무역회사는 표 2에서와 같이 대부분 당, 내각, 군, 안전부, 주요 도급 기관 및 기타 주요 '특권기관' 산하에는 소속되어 있다. 특히 군부 무역회사로는 인민무력부 직영의 매봉무역총회사(1980년 설립)와 유진상사(1992년 설립), 인민무력부 후방총국 산하의 룡성무역회사(1992년 설립)와 남해무역회사(1991년 설립), 인민무력부 정찰국 산하의 비로봉무역회사(1998년 설립)와 모란회사(1992년 설립), 인민무력부 도로국 산하의 은하수무역회사(1991년 설립), 인민무력부 운수관리국 산하의 만풍무역회사(1987년 설립), 인민무력부 적공국 산하의 위성무역총회사(1992년 설립), 인민무력부 군수동원총국 산하의 룡흥무역회사(1990년 설립), 공군사령부 산하 단풍무역회사(1988년 설립)가 있으며 그 이외에도 조선매봉회사, 조선청운산무역회사는 군부의 인민무력부 직속 무역회사이다. 이밖에도 조선봉화총회사는 북한 대외무역을 총괄하는 중앙의 대외경제위원회 소속이다. 조선 대성무역총회사와 조선대흥무역회사는 39호실 당기관소속이며, 이들 모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셋째, 그러나 이러한 특권기관 소속의 회사라고 해도 수입할 원천기지 바꿔 말하면 외화벌이 원천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중앙으로부터 무역회사설립 허가를 받지 못한다. 즉 생산기지(공장), 원천기지(수산물, 약초 등) 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조선정성무역회사의 경우, 제약회사로서 약초를 모태로 약을 제조할 수 있는 생산기지, 연구소가 구비되어 있다.[4] 북한의 최대 피복가공무역 회사인 조선은하무역총국 산하에도 신의주·성천강·원산 및 대동강 등 수출 피복 공장과 동대원, 용성과 선교 피복공장 등 20여개의 의류공장들을 가지고 있다. 김책제철소나 무산 광산의 경우도 생산기지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노동당 평양시당위원회 소속 조선 릉라도무역총회사는 20여 곳의 수출전문기지, 선박운항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무역회사는 일반 무역회사와는 달리 기업에서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는 상품의 유통뿐만 아니라 생산의 기능까지도 겸비하고 있는 생산경제단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보안성 소속 록산무역회사의 경우, 보안성은 생산의 주체가 없다. 이럴 경우 삼국대거리를 시켜준다.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통나무를 사서 다시 일본에 팔거나, 일본에서 중고 자동차를 들여와 중국에 팔아 외화를 획득하는 이른바 중계무역의 방식이다.

넷째, 그러나 이와 같이 생산기지를 가지고 무역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특권기관

4) 연구소 및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정성의학종합센터는 1995년 정성제약연구소로서 출범한 뒤 초기부터 한국의 녹십자제약과 협력해 소변에서 추출하는 우로키나제 반제품을 생산했으며, 2006년까지 생산된 제품의 일부는 한국으로 수출되기도 했다(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43265: 검색일 2012. 9. 23). 또한 정성제약은 지난해 3월에는 알약품공장 준공식을 갖고 항생제, 해열제 등 기초의약품에서 전문치료제에 이르기까지 60여 종의 약품에 대한 대량 생산체제에 돌입했다. 알약품공장은 타정기(알약을 찍어내는 기계), 계수기(알약을 병 단위로 자동 포장하는 기계), 4면 포장기(4면을 동시에 밀폐하는 포장기계) 등 현대식 설비를 갖춰 알약·캡슐·과립 등의 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정성제약은 이 외에도 병주사제공장, 유로키나제공장, 고려의학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남측의 시설·기술 지원으로 최첨단 제약공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이라 해도 '와크'를 할당받지 못하면 무역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다. 여기서'와크'란 무역품목과 액수에 관하여 중앙권력 또는 김정일이 할당 또는 허가해준 독점권이다. 이 무역독점권의 기원을 살펴보면 '중앙당경제' 외화벌이사업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여기서 중앙당 경제란 정무원 산하의 국가계획위원회가 담당하는 계획경제부문(민수부문)과는 별도로 중앙당 재정경리부산하의 '39호실'이 담당하는 김정일 직속 경제부문으로, 김일성 생일날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선물사업에서 비롯되었다.[5] 중앙당은 전국의 각 도·시·군별로 '5호관리소(외화벌이수매소)'를 설치하고 이를 매개로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의 가격차를 이용하여 수출할 수 있는 특권을 독점함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올렸다. 예를 들면 외화벌이에 동원된 일반 주민이 송이버섯, 멍게, 명태, 명란 등의 상품을 채취하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 된 5호관리소가 이를 헐값을 수매한다. 중앙당은 5호관리소를 통해 수매한 상품을 취합해 일본 등 자본주의 시장에 고가로 독점 수출하고 여기서 벌어들인 자금으로 자본주의 시장의 염가 상품을 수입하여 외화상점에 독점 판매함으로써 거액의 차액을 올린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군부를 비롯한 주석부·호위국·보위부·안전부 등 특권기관들도 '외화벌이수매소'를 차리고 중앙당 외화벌이와 경쟁을 벌이면서 기존의 중앙당 수요독점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6] 특히 서해갑문,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막대한 외화수요가 초래되면서 외화벌이는 문어발식으로 다른 기관까지 급속도로 확장되었다.[7] 신의주 시의 경우도 조사결과, 1989년을 전후로 외화벌이 무역회사들이 20개로 급증하였으며 1990년대 배급제 붕괴 이후 200여개로 증가하였다.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당식당의 경우도 관련기관은 대외봉사국이지만 여러 비전문 단위에서도 하고 있다. 중국 단동에 있는 송도원 북한 식당의 경우 대외봉사국 소속이 아니라 체육성 소속이다. 외화가 나올 능력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식당업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단위가 얼마나 큰 와크를 허가받느냐 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 김정일의 내부권력운영에서 당, 정부, 군 등 어느 곳에 힘이 실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선군시대에는 군부 산하 무역회사에 많은 와크를 부여하였으나 단동지역 조사 결과, 김정은 시기에는 당의 권한이 강해짐에 따라 군부산하의 무역회사를 상당 부문 당 소속으로 이전하였다.[8] 그러나 일반적으로 북한체제의 특성상 내각의 무역성 보다는 당과 군부의 권력이 상위에 있었다.

---

5) 정은이,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 「아세아문제연구」 제54권 1호(2011a), p. 249-251 참조.

6) 이에 관해서는 좋은 벗들 편(2000), p. 150 참조.

7) 1990년대에 들어와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 바람으로 사회주의 시장은 몹시 변질되었다……계획경제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쇠약이 가속화되었다. 특권기관들도 외화벌이를 하지 않으면 그 운영이 힘들다는 절박한 충동을 주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이 있듯 중앙당이 계획경제를 침해하고 유독호화를 향수하니 군부나 사로청을 비롯한 특권기관들은 너도나도 명분을 내걸고 외화벌이를 시작하였다. 군부의 대표적 명분은 서해갑문, 수력발전소의 건설이었다.」(최진이 편, 임진강 2008년 3월 2호, pp. 90~92).

8) 대북 사업가에 대한 인터뷰 조사결과, 이 시기는 2012년 7월 초부터이다.

제 2절 북한무역회사의 이윤 배분 구조

특권경제의 주체는 당, 내각, 군, 안전부, 보위부, 주요 도급 기관 및 기타의 중앙과 하부의 각종 기관이며, 그 수단이 기관들이 산하에 외화벌이 회사를 설립하고 외부자금과 인원을 끌어들이고, 주로 특정 무역회사 독점권에 기초한 외화벌이 장사를 통하여 수익을 올린다. 그 수익의 일부는 해당 기관의 조직 유지와 업무 수행을 위한 자금으로 쓰이고, 그 나머지 일부는 주요 간부, 외화벌이 참가 외부 인원 등의 개인축재에 사용된다. 이러한 외화벌이의 모체가 바로 회사이다. 이러한 외화벌이 회사의 구조를 살펴보면 조사결과 다음과 같다.

우선 맨 위에 총국이 있다. 이 총국은 각각 당, 내각, 군, 안전부, 부위부 등 특권기관소속이다. 예를 들어 강성총회사, 백호무역총국, 승리무역총국는 인민무력부 산하이며, 신흥총회사는 국가보위부 산하, 록산총회사는 인민안보성 산하로 이들 회사는 모두 대표적인 군부 사업체다.

이러한 총국들은 각기 산하에 부문별로 여러 개의 무역회사를 둔다. 예를 들어 노동당 39호실의 핵심기관인 대성무역총회사(대성총국)는 무역성 소속으로 산하에 중공업, 경공업, 농수산물, 상업서비스 등 부문별로 10개의 전문무역회사(대성 제 1-10무역회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금속(1국), 편직(2국), 수산물(3국), 농토산물(4국), 항(5국), 수입(6국), 인삼(7국), 전자연합(8국), 되거리무역(중개무역·9국), 대외상업(10국) 등 업종별로 10여개의 무역회사를 갖추고 생산, 무역 등 모든 경제활동을 독자적으로 하는 거대 그룹이다. 조선 능라도 무역총회사의 경우, 농산물, 수산물, 금속, 의류 등을 중심으로 산하에 제 1-8무역회사를 가지고 있다. 즉 총국 산하에 수산물, 약초, 광물 등 부문별로 각종 무역회사를 두고 있다.

이러한 무역회사는 도(道)별로 소재지에 '지사'를 둔다. 수산물이라면 주로 원산지사, 남포지사, 해주지사 등이 있다. 대외경제위원회 소속 조선광명무역총회사의 경우, 산하에 10곳의 지방무역회사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한 개의 도시에 당기관, 군부기관, 내각 등 여러 기관소속의 무역회사들이 입지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각 지사들의 산하에는 시(市), 군(郡)별로 여러 개의 출장소를 둔다. 수산물의 경우 해주지사라면 조개류, 전복류, 해삼 등이 많이 잡히는 강령군, 옹진군, 태탄군에 출장소를 둔다. 청진지사라면, 약초나 산나물이 많이 나는 회령이나 무산, 남양, 나선 등에 출장소를 둔다.

각각의 출장소 산하에는 또 다시 여러 개의 리(里)에 분소를 설치한다. 분소는 송이, 약초와 같이 원천을 수매할 수 있는 현장(산지)이 된다. 예를 들어 송이라면 칠보 산이 입지해 있는 명천군 개상리, 포상리, 보촌리 등에 송이를 수매하기 위한 분소를 둔다. 여기서 원천 지도원은 외부에서 고용된 사람들로, 주민들이 황기를 1킬로그램을 가져오면 쌀, 식용유 몇 킬로그램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공시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바꾸러 온다. 혹은 원천지도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수거하여 차로 가져와 분소에 수거하는 일을 한다.

그 외에 세관이 있는 국경도시에 출장소를 둔다. 이 국경 출장소는 위에서 언급한 시, 군별로 설치된 출장소와 기능이 다르다. 전자가 원천을 수매하기 위한 출장소, 분소라면 국경지대에 위치한 출장소는 국내에서 거둬들인 상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기 위한 출구로서의 출장소이다. 예를 들어 출장소의 구성을 보면 20명 정도의 인원이 있다. 즉 회사 사장, 부사장, 경리, 관리원, 직접 세관에 나가서 교역하는 사람들, 기관차 운전기사, 원천동원과를 두어 수산물, 고사리 수거하는 원천지도원, 식당 관리원 등의 직원들로 이들은 주로 외부에서 선발한다. 따라서 이러한 출장소는 무산, 회령, 나선, 온성, 남양, 신의주 등에 설치되어 있어 전국에서 물품을 수매하여 중국으로 넘긴다(표 3 참조).

<표3> 중국 변경무역의 10대 세관

중국 측 세관 명칭	북한 측 세관 명칭	세관 등급	수화물 능력
단동육로철로세관	신의주세관	1급	
두만강철로육로세관	남양세관	1급	275
		2급	10
남평육로세관	무산세관	1급	20
고성리육로세관	삼장세관	2급	10
삼합육로세관	회령세관	1급	15
개산춘육로세관	온성세관	2급	10
권해육로세관	원정리세관	1급	60
장백육로세관	혜산세관		
집안세관	남포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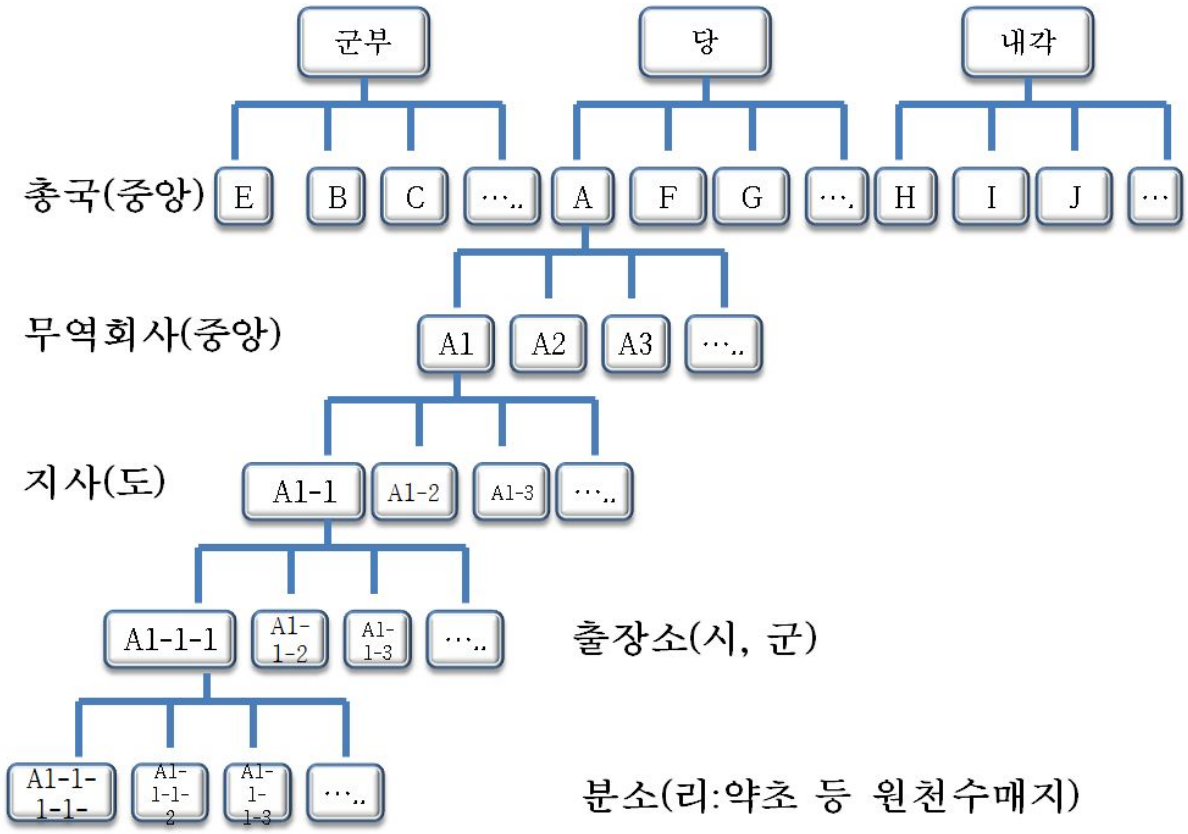
예를 들면 무산에 있는 38호실, 39호실 당 기관 소속의 수정회사는 중국에서 트럭 등 중기계를 들여온다. 그 대신에 광석, 연 정광, 금정광 등 정광 및 통나무를 중국에 수출하는 일을 한다. 이때 이 정광이나 통나무와 같은 원천은 무산에서 생산, 수매된 것이 아니라 양강도, 황해남도 등 전국에 퍼져 있는 출장소를 통해 들여온 것이다. 인민무력부 산하의 군부 소속 록산회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록산회사는 기존에 일본 중고자동차를 수입해 중국에 되팔아 이윤을 얻었던 이른바 중계무역회사였다. 그러나 현재는 일본과의 교역이 중단되어 정광으로 눈을 돌렸다. 이 정광 또한 전국 각지에 나가있는 출장소로부터 거두어들인 것이다. 광석은 주로 황해도에서 생산한 정광을 가공해서 들여온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군부 소속의 회사들이 황해남도 웅진에 공장을 만든다. 부선장을 만들어 광물의 순도를 높인다. 삼지강회사의 경우, 북한의 물길공사를 한다. 논밭에다가 대동강 물을 끌어다가 주는 물길공사를 하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그러한 설비를 들

어온다. 그 대신 수산물을 수출한다. 수산물 기지는 청진, 함흥, 서해면 해주, 온천 등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것을 무산출장소에 집결시킨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함경북도 청진지사나 함경남도 함흥, 원산 등 북동쪽에 위치한 지사의 경우 주로 회령, 무산, 온성 등에 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해주, 개성, 평성 등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의 경우 신의주에 출장소를 두어 세관과 직접 교역을 하여 물품을 수출입 한다.

이러한 무역회사의 구조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즉 가장 위는 당, 내각, 군부의 특수기관이 차지한다. 그 다음 총국이 있다. 예를 들어 39호실 산하만 보아도 A총국, B총국, C총국, D총국, E총국 등 수많은 총국들이 존재한다. 그 다음 각각의 총국 산하에는 각종 무역회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A총국 산하에는 A1, A2, A3, A4 등의 무역회사가 부문별로 존재한다. 그 다음 무역회사 산하에는 지사가 있다. 예를 들어 A1무역회사 산하에 A1-청진지사, A1-신의주 지사, A1-혜산지사, A1-사리원지사, A1-함흥지사 등이다. 이 지사 밑에는 각각의 시군에 출장소가 있다. 예를 들면 A총국 A1무역회사 A1-1지사 아래에는 (A1-1)지사 1출장소, (A1-1)지사 2출장소, (A1-1)지사 3출장소, (A1-1)지사 4출장소 등의 출장소가 시군별로 있다. 출장소 산하에는 다시 리 단위에 분소를 둔다. 예를 들면 (A1-1)지사 1출장소에는 리 단위에 { (A1-1)지사, 제 1출장소, 제 1분소}, { (A1-1)지사, 제 1출장소, 제 2분소}, { (A1-1)지사, 제 1출장소, 제 3분소}, { (A1-1)지사, 제 1출장소, 제 4분소}, { (A1-1)지사, 제 1출장소, 제 5분소} 등에 설치한다. 그 외에 수출입을 위한 장소로서 세관이 위치한 지역이 있다.

그러므로 한 개의 도, 시, 군, 리에 당, 군, 내각 등 기관소속의 회사들이 집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북한 무역회사의 구조

제 3장 북한무역회사의 기능

제 1절 이윤배분: 상급단위

‘와크’란 무역품목과 액수에 관하여 중앙권력 또는 김정일이 할당 또는 허가해준 독점권이다. 따라서 원칙상 기관이 와크를 받지 못하면 북한에서 무역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이 와크는 서로 교환 가능하며 심지여 사고 팔리기도 한다. 바꿔 말하면 이 와크는 횡적으로 종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의미이다. 조사 결과, 예를 들어 A총국이 오징어 10톤을 중국에 수출할 권한이 있지만 50톤 정도의 임무만 수행하고 나머지 50톤은 수행 못했을 경우 A회사는 계획을 대신 수행해 줄 회사를 찾는다. 만약 B회사가 오징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B회사에게 와크를 빌려준다. B회사의 경우 와크를 할당받지 못했거나 혹은 계획을 수행하고 잉여가 생겼을 경우, A회사의 와크를 빌리는 것이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면 A회사는 와크를 빌려준 대가로 중간에 수수료를 챙긴다.[9] 이 와크를 빌려주는 일은 말단 단위 즉 분소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총국, 무역회사, 지사, 출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분소는 특정 산물이 채취되는 곳에만 설치되기 때문에 한 가지 지령만을 받은 상품만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송이버섯의 분소가 세워지는 칠보 산에서는 송이버섯만이 원천이기 때문에 분소 단위에서 와크가 사고 팔리는 일은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와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때 상대가 중국이라면 중국에 상주하고 있는 북한무역지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 단동시의 경우, 대부분 무역회사의 출장소가 나가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단동세관으로는 먼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는 중국에서 차가 나가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북한에서 물류가 이동을 한다. 일방통행이어서 시간이 지체되면 만위엔 정도의 벌금을 문다. 따라서 세관 주변은 항상 차량으로 교통체증이 심하다(사진 2, 3참조).

이때 무역회사 지도원들의 역할은 계약서 작성, 자금 결제 등이지만 무엇보다 좋은 대방(무역상대)을 잡아 소속기관과 연결시켜주는 일이 중요하다. 즉 외국에 나가있는 무역지도원들은 중국 기업으로부터 많은 주문을 받아서 이를 북한의 현지 무역회사와 연결시켜주고 수출 및 대금결재까지 성사시키는 역할을 한다.

9) 와크를 가진 회사들의 권한은 대단하다.

<사진 2> 단동 세관 앞	<서잔 3> 단동세관 주변: 교통체증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회사 지도원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예를 들어 100톤을 중국에 넘기기로 되어 있으나 중국 회사와 짜고 수산물 150톤을 넘기고는 100톤을 넘긴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쓰기도 한다. 가격 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정해준 광석 가격은 광석 1톤당 천 달러지만, 중국 회사에는 톤당 천 이백달러로 넘기고는 1톤당 천 달러로 넘긴 것처럼 계약서를 중국 측 회사의 동의하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 광석의 경우 한 톤당 1, 2 달러만 차이가 나도 총액에서 엄청난 차익을 챙길 수 있다고 한다. 혹은 일을 성사시켜준 대가로 중국 측의 회사가 무역지도원에게 사례로 얼마의 돈을 준다. 특히 중국 단동시내에는 조선족 인구는 약 1.5만 명이며 화교 5400명, 단동으로 회귀한 화교는 8300명, 북한관련 무역일꾼이 1만 명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5만 명에 이른다. 따라서 북한무역상들이 활동하기에 유리하다.

이와 같은 중간 수수료는 무역회사지도원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반면 일 년에 수행해야 할 과제가 있다. 예를 들면 단동시에 상주하는 A무역회사의 지도원은 한 사람당 1년에 1만 달러의 과제를 수행해야만 한다. 만일 가족이 4명이 중국에 나와 있으면 4만 달러(4*1만 달러)의 액상을 상부기관에 받쳐야한다. 만일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면 바로 본국으로 소환 당한다. 뿐만 아니라 당국에서 요구하는 많은 과제들이 있다. 예를 들면 군부의 경우, 군부강성회사의 경우 군인들의 군복이 필요하다면 모든을 일 다 뒤로 하고 군복을 교체해 줘야 한다. 내각에 속한 광명성 회사의 경우 수해가 일어났다면 모든 자금이 수해 복구 작업에 들어간다. 당 기관에 속한 무역회사의 경우 축제, 축전이 있다면 그곳에 자금을 대 주어야 한다. 따라서 확대재생산이 어려우며 크고 권력 있는 기관에 속한 무역지도원일수록 힘들다.

따라서 해외에 주재하는 무역지도원들은 힘이 있는 기관에 속해있을 경우에 본국으로부터 수행해야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권력이 약한 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의 무역지도원들은 중간 수수료로 얻은 이윤의 일부를 무역회사 상부에 상납해야 한다. 그래야만 해외에 상주할 수 있는 자격과 자리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단위의 제일 윗 단위에서 받는 뇌물은 어마어마하다.

따라서 무역지도원들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외화벌이가 되는 모두 품목이 무역대상이 된다. 또한 이들은 본인이 속한 무역회사의 일을 하지만 때로는 다른 무역회사와 연결시켜 중계수수료를 챙기기는 일도 한다. 심지어 내각 소속의 일반 공장과도 연결해 주며 수수료를 받는다. 예를 들어 A라는 피복가공 지방공업이 자금문제로 가동을 할 수 없다면 무역지도원은 중국 대방으로부터 주문을 수주 받아 이 회사와 연결시켜 주고 그 대가로 중간에 수수료를 받는다.[10] 지방공장의 경우, 무역지도원을 통해 소개받은 중국 회사로부터 옷감, 실, 디자인 등을 수주 받아 가공을 한다. 이를 통해 공장을 유지시키고 종업원들의 식량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회사들은 이러한 수주를 받기 희망하며 이러한 영업활동은 때로는 무역지도원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조사결과, 단동에 나와 있는 북한 무역회사는 약 80여개가 있으나 무역회사라기 보다는 일종의 중국회사와 북한 회사를 연결시켜주고 컨설팅을 해 주는 일종의 에이전시와 같은 중계업자로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품목도 연결해 준다. 따라서 출장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으며 출장소는 대부분은 작은 사무실 한 개에 직원이 많게는 5-6명, 적게는 2-3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중국 단동에서는 북한 무역상을 대상으로 한국 상품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있다. 예를 들면 东放商社(동방상사), 龙川商社(용천상사), 龙川机械商社(용천기계상사) 등에서 쿠쿠밥솥(북에서는 '말하는 밥가마'라고 함)을 비롯하여 북한의 전력사정을 감안하여 손발전기 등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 심지어 LG 냉장고, TV, 기계 등 한국 상품을 대량 구매하는 고객이 있다(사진 4, 5 참조). 이러한 북한개인무역상들 덕에 이러한 상점들은 1년에 몇 십억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꼬마식품, 한국 식품 등에서는 과자, 라면, 우유 등 100% 한국에서 직접 들여온 물건을 파는 한국 마트이다. 그 이외에 집 리모델링과 관련된 도배지, 장판지 등 한국 상품을 파는 상점들이 많다. 이곳의 고객은 단동에 사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북한사람들이라고 한다.

그 이외에 북한의 개인 무역상들은 '신리여유(新柳)'등 단동의 몇 몇 백화점에서 고가의 물건을 대량 구입해 본국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6, 7참조). 어떤 류의 도소매 상점들은 주로 옷을 비롯하여 가전제품이 이르기까지 70%가 한국 상품이라고 한다. 신리여우 상점에 가 보아도 1층 화장품, 식품매장은 한국 상품을 다루고 있으며 매장의 디자인, 광고도 한국의 것을 그대로 들여놓았다. 그 이외에 도매상점들도 있다(사진 8, 9참조). 북한의 개인무역상들이 바로 이러한 곳에서 고급 상품을 구입하여 본국으로 들어간다. 이들이 이러한 고급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이유는 국내 판매보다는 주로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또는 선물, 뇌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는 특정인에 한해서 외국에 나올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북한 내부에서는 해외에 있는 무역지도원들에게 많은 상품 구입을 부탁한다.

---

10) 중국의 대북 사업가들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임가공업체는 이러한 형식들 통해 공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중국 의류업체는 이러한 북한 무역지도원들을 통해 북한 피복업체 기업에게 주문을 하여 의복을 들여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중국 북경 올림픽 때 중국 선수들이 입었던 361도 브랜드 스포츠 의류는 대부분 북한에서 가공하여 들어온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임가공 공강들은 주문이 밀려있을 정도로 가동률이 높은 상태라고 한다.

이들의 파급력은 크다. 이는 컴퓨터를 실례로 들어 입증할 수 있다. 북중 접경지대 조사결과, 컴퓨터는 북한에서도 상당히 고가품이며 전략물자이기에 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들 무역지도원들을 통해 컴퓨터가 북한 내부로 많이 들어가 있다. 최근에는 황해도와 같이 남한에 인접한 도시는 컴퓨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을 통해 많은 컴퓨터가 들어가 형편이 나은 가정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컴퓨터를 구비한다. 이제는 5장(가구) 6기(가전제품) 중 컴퓨터가 집에 있는지의 여부가 주민의 부를 결정하는 지표가 되었다. 이에 따라서 황해도 등 남한과 전파가 통하는 지역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실례를 들면 컴퓨터를 이용하여 남한 드라마를 복사 DVD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늘어났다. 이제는 위험을 무릎 쓰고 중국 국경을 통해 한국 드라마 DVD를 들여올 필요가 적어진 것이다.

<사진 4> 용천기계상사	<사진 5> 용천상사
	
<사진 6> 신리여우 상점	<사진 7> 신리여우 상점 내부-화장품 코너
	
<사진 8> 진하이 바오산 도매시장	<사진 9> 진하이 바오산 도매시장 내부
	

제 2절 중간단계에서의 이윤배분: 물류창고와 도매상점

대북 사업가 및 북중 접경지대 주민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북한 무역회사에 대한 분석 결과, 북한 대부분의 무역회사들은 중국에서 주로 수산물, 약초, 정광 등 1차 생산품을 수출하고, 거기서 얻은 이윤으로 일부는 중앙에서 내린 계획을 수행하고 그 나머지 자금으로는 식량과 생필품 등을 수입해 들여온다. 이때 대부분 무역회사는 신의주, 무산, 회령, 남양 등 세관을 끼고 있는 국경출장소를 통해 공식적으로 물류를 대량으로 들여온다. 이렇게 들여온 물류는 각 도에 설치된 무역회사 지사로 집결된다. 예를 들어 함경북도의 경우 회령, 무산, 나선 시군 급 출장소를 거쳐 들어온 물품이 청진지사에 집합된다. 북중국경도시 신의주 도시는 평안북도 도 소재지이면서 세관을 끼고 있어 지사와 출장소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사에 물류가 집중되면서 각 지사에는 상품을 보관할 거대한 창고(일반창고, 냉장·냉동창고 포함)가 만들어진다. 세관을 통해 출장소로 직결된 후 도급으로 보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고 옆에 도매할 수 있는 생필품 판매소가 만들어지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즉 중앙으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지사에서 보관을 했다가 분배를 해 나간다. 이로써 중앙으로 올라갈 것과 도매상에게 넘길 것이 구분된다.

그러므로 국경을 끼고 있는 큰 회사들이 도급에 나와서 모두 판매소를 가지고 있다. 청진, 혜산, 신의주 등에는 물류 창고가 생기고 물자교류가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무력부 소속 남강판매소이다. 남강판매소에는 12개의 창고가 있다. 여기에는 1, 2, 3, 4, 5, 6, 7, 8, 9, 10, 11 등 수많은 창고를 만들어 품목별로 분류해 놓고 있다. 이 물류보관 창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전국 각지에서 도매상인들이 몰려들어 물건을 대량으로 도매해 가는 판매소가 되었다. 즉 전국의 도매상점이 된 것이다. 각 무역회사의 판매소는 일반 주민들이 와서 한 두 개 사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대량의 차판 장사들만이 접근할 수 있다. 한편, 판매소의 상품판매가격은 국정가격이나 독점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에 가깝다. 왜냐하면 각 도에 판매소가 많아 자연스럽게 경쟁이 생긴다. 따라서 도매상을 상대로 판매유치를 하지는 않지만 다른 판매소에 비해 가격을 조금 내리는 판매소도 있다.

특히 신의주시는 평안북도 북서부에 있는 시. 동쪽은 의주군과 피현군, 남쪽은 용천군, 서쪽과 북쪽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단둥(丹東)과 접경을 이루는 국경의 관문도시이다. 압록강 하류연안에 자리 잡고 있어 전반적으로 평탄한 평야지대로 되어 있다.[11] 더욱이 신의주는 평의선의 종점이며 여기서 중국으로 통하는 철도가 이어진다. 평의선의 남신의주 역에서는 덕현선(남신의주-의주-덕현)과 백마선(남신의주-피현-염주)이 갈라진다. 도로는 신의주~평양, 신의주~의주, 신의주~피현간을 잇는다. 신의주항을 통해 압록강 하류의 섬들과 용암포-비단섬-철산-정주-남포-해주에 이르는 구간에서는 화물수송이, 압록강 상류로는 의주-옥강-청성까지의 구간에서 화물과 여객 수송이 이루어진다.

11) 시의 중심부는 해발 평균높이 5~10m로 매우 낮으나, 동쪽과 서쪽으로는 군데군데 50~100m 정도의 언덕들이 있다. 산림은 시 면적의 약 8%이며 주로 북동부일대에 퍼져 있다. 교육도서출판사 편, 『조선지리전서: 평안북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1989). p. 432.

또한 신의주-유초리-황금평리-비단섬 사이에 여객선이 다닌다.

그러므로 신의주시의 경우 평양 대부분의 무역총국들은 신의주에 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각각의 창고를 두고 있다. 특히 신의주시의 강 건너 중국 단동시와 육로 및 철로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단동시는 중국에서 가장 큰 접경도시로 심양, 대련 등 중국의 경제도시와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의주에는 각 무역회사의 출장소와 지사가 집결되어 있으며 물류의 중심지가 된다.[12] 그림 1에서와 같이 압록강 철교를 지나오면 바로 세관이 있으며 이 세관 주변에는 물류를 보관할 수 있는 세관창고 뿐만 아니라 각 무역회사의 창고들이 있다(사진 10).



<사진 10> 신의주 시 세관 근처 무역회사 창고들
출처: Google Earth 필자 정은이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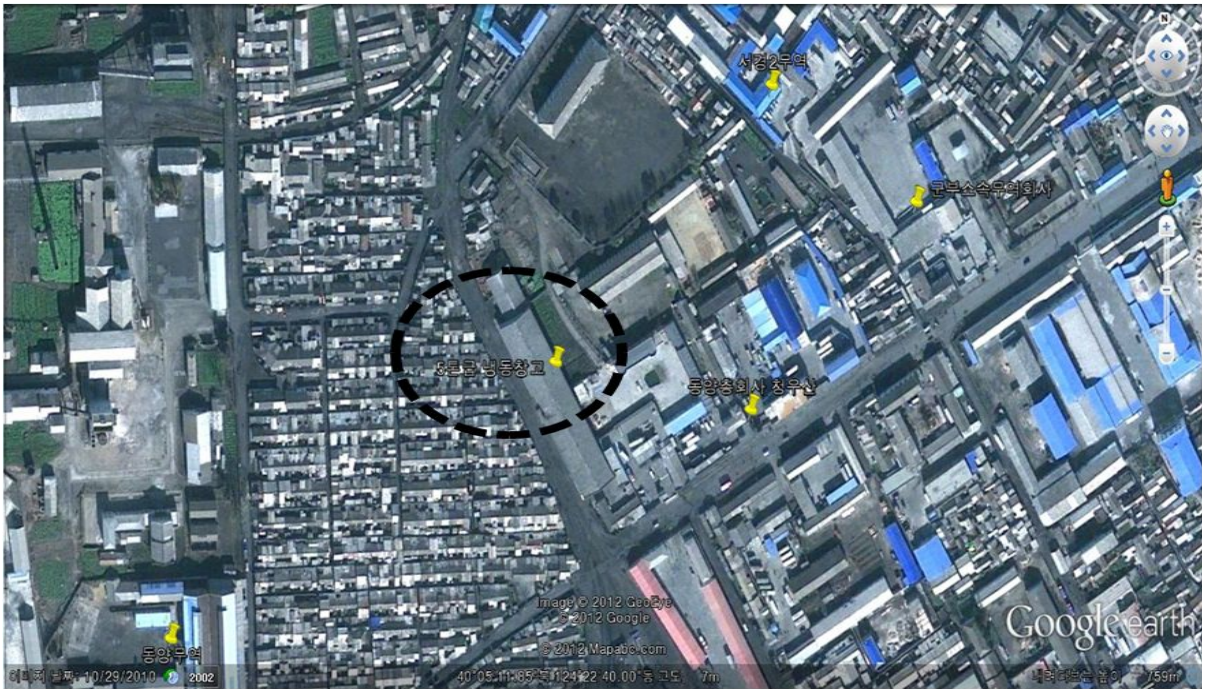
더욱이 신의주는 평양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로 전국적이 철로와도 상대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 북한 최대의 무역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력이 가장 큰 회사들의 출장소와 창고가 교두와 가까운 곳에 입지해 있으며 교두와 가까운 곳에 회사와 창고들이 집결되어 있다(사진 10, 11). 신의주 주민들 또한 이러한 환경을 이용하여 무역회사에 종사하거나 회사에서 들여온 상품들을 받아 도매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창고는 사무실과 상품보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주요하게 되었다. 예를

12) 신의주시는 평안북도 서북부 압록강 하구 남안에서 상류쪽으로 25km지점에 위치한 도소재지이다. 북동쪽은 의주군, 동쪽과 동남쪽은 피혁군, 남쪽과 남동쪽은 용천군, 북쪽과 서북쪽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단동시와 접하고 있다. 중국 단동시는 조중우의교를 통해 연결되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들어가는 몇 안 되는 입구 중 하나이다. 교육도서출판사 편, 『조선지리전서: 평안북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1989). p. 429.

들어 사진에서와 같이 신의주시에서는 각 출장소로부터 집결된 수산물을 냉동, 보관하여 교두로 넘기기 위한 거대한 창고가 입지해 있다(2사진). 조사 결과 이 창고는 신의주시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각각의 무역회사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임대해 주고 있다.



<사진 11> 신의주 시 무역회사
출처: Google Earth 필자 정은이 검색



<사진 12> 신의주 시 무역회사근처 5톤급 냉동 창고
출처: Google Earth 필자 정은이 검색

특히 광석의 경우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철로를 이용해야 한다. 광석 이외에도 육로보다는 철로를 통해 중국으로 운반되면 편리한 물류들이 많다. 따라서 신의주시가 철로를 통해 물류를 중국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은 철로가 구비되어 있지 않는 무산, 회령 등 접경도시에 비해 무역도시로서 훨씬 유리한 환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3절 말단에서의 이윤: 무역회사의 사례

북한 무역회사의 이윤분배 구조를 살펴보면 상부에서 중간단계, 말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위에서 외화벌이를 통해 이윤을 얻고 있다. 특히 말단의 경우 시장과의 직접적인 연계 속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 시장에 나와 있는 수산물의 경우 100%가 국내산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산물이 시장과 연계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실질적인 배의 주인인 선주가 외화벌이 기관의 명의를 빌려 조업을 한다. 여기서 수확한 수산물의 일부를 선주가 해당기관과 선원, 그리고 본인에게 나눈다. 노동의 대가를 수산물로 받은 선원들은 현지에서 수산물을 도매하러 온 도매상들에게 그 자리에서 넘기고 도매상들은 각 지로 흩어져 이를 시장에 도매, 소매한다. 선주 또한 동일하다. 자신의 이윤으로 남겨둔 수산물을 직접 도매상들에게 넘긴다. 그러면 도매상들은 각지의 시장에 나가 도소매로 내다 판다. 즉 외화벌이를 통해 생산, 채취된 생산물들이 말단 단위를 통해서 시장으로 방출되고 있는 것이다. 석탄 또한 마찬가지이다. 석탄의 경우 실질적인 탄광의 주인인 사장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탄을 캐지만 일단 캔 탄은 수출용과 국내용으로 구분된다. 이 국내용은 외부에서 고용된, 시장능력이 뛰어난 자재지도원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 유통된다. 이와 같이 무역회사, 외화벌이는 북한의 주민, 말단 단위, 시장과 밀접한 연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다음 사례들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 이하의 사례는 북중 접경지대 조사, 탈북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 결과 대표적인 사례로서 요약 정리한 것이다.

(1) 사례 1 : 송이, 약초 수매

송이(약초)지령이 중앙(총국)에서 떨어지면 지사에서는 송이(약초)산지와 가까운 시·군에 출장소를 설치한다. 출장소는 다시 산지에 분소를 설치한다. 분소에서는 송이를 수매할 능력 있는 원천지도원들을 외부에서 선발하여 파견시킨다. 이 원천지도원들은 현장에 나가 송이를 주민들로부터 수매한다. 예를 들면 A분소에서는'송이 1등급 1킬로그램을 채취해 오면 설탕 9kg과 바꿔준다'라는 공시를 분소 앞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붙이면 주민들은 산에서 개별적으로 캔 송이를 분소 또는 수매지도원들에게 가져온다.

이때 주민들은 송이를 수매소에 건넨 대가로 설탕, 식량, 생필품 등 가장 빨리 시장에 나가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교환 받는다. 주민들은 이러한 상품의 일부를 자가 소비 외에 나머지 잉여부문을 시장에 내다 팔거나 다른 상품과 교환한다.

한편 원천수매 지도원들은 송이 액상 계획만 분소에 받치고 나머지 수거된 송이는 다시 밀수로 넘긴다. 왜냐하면 외화벌이수매소에 받치는 송이가격은 일종의 국가기관이므로 낮다. 또한 지도원은 수거된 송이 중 등급이 낮은 송이만 남기고 3급 이상의 송이는 밀

수로 중국과 거래하는 중개인에게 또는 직접 따로 분류하여 넘긴다.

분소에 집결된 송이는 중앙에까지 가지 않고 곧바로 혜산, 회령, 무산 등 세관이 있는 각 시군의 출장소로 집결시킨 후 공식적인 무역 절차를 밟고 중국에 넘긴다. 일본이 주 무역대상국이었을 때에는 모든 송이는 원산에 집결시켜 바로 비행기로 실어갔다. 이때 송이를 넘길 때 세관 및 중국 대방과 짜고 이윤을 남긴다. 예를 들면 중앙에서 내린 액상 계획이 송이 100kg이라면 130kg을 넘기고 나머지 30kg은 축재한다. 혹은 중앙에서 송이 1kg그램당 중국에 넘기는 가격을 500달러로 정했다면 실지로는 600달러에 넘기고 이윤을 유보한다.

이 돈이 지사로 들어가면 지사에서는 이윤의 일부는 중앙 총국에 받치고(액상계획: 외화) 그 나머지는 국경출장소를 통해 직접 중국으로부터 값싼 식량과 생필품 등을 수입해 들여온다. 이것을 창고에 집결시키면 전국 각지에서 도매상들이 와서 물건을 도매로 대량 구매해 한다. 즉 창고가 일종의 판매소와 같이 운영되어 여기서 나온 이윤으로 기관 유지비, 재생산, 개인축재에 쓴다.

(2) 사례 2 : 수산물

수산물의 경우, 약초나 송이버섯처럼 산지로 갈 필요가 없다. 바닷가는 산지에 비해 비교적 교통이 좋아서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리 등에 설치된 분소 대신에 시, 군 출장소에 현지를 둔다.

이때 지사에게 예를 들어 낙지 1톤을 수매해야 한다는 지령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면, 지사는 시, 군 급의 출장소에서 지도원을 선발하여 현지에 파견시킨다. 현지에 나간 지도원은 우선 배를 가진 선주(船主)들을 물색한다.

선주가 가진 배는 2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배지만 어쨌든 연료 및 고기 잡는 일체의 도구, 선원 고용 등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능력 있는 사람이다. 즉 일종의 개인기업형태이다.

지도원은 이러한 선주와 계약을 한다. 즉 선주는 기관에 얼마의 수산물을 받치기로 한 대신 기관명으로 공식적으로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다시 말하면 선장은 '얼마만큼'의 수산물을 잡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냥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때 잡은 고기는 선주, 선원, 기관이 나누어갖는다. 일반적으로 선주와 계절노동자(선원)들은 잡은 고기의 6대 4의 이윤이 분배된다. 6은 선주가 국가(기관)의 계획을 수행하고, 그 나머지로 배 유지비, 선원고용, 고기잡는 도구, 이윤 등 다음에 조업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돌린다.

이때 바닷가에서는 선주 및 선원들이 가진 수산물은 1차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온 도매상들이 차판으로 날라 간다. 이러한 도매 네트워크가 이제는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특히 수산물은 현금으로 가장 빨리 전환할 수 있는 물품 중 하나이다. 따라서 동해, 서해안의 바닷가 쪽에는 조개, 오징어 등의 철이 되면 어머 어마한 계절노동자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다. 최소한 식량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장소로 올라간 수산물은 지사에서 모여지고 지사에서 바로 출장소로 넘겨져 중국으로 넘겨진다. 혹은 수상에서 직접 중국 배들과 교역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익금을 가지고 중국에서 값싼 생필품과 식량을 들여온다. 지사에 집결된 물류 창고에서는 사례 1에서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 즉 전국 각지의 도매상들이 몰려와서 도매로 물건을 대량 해 간다.

(3) 사례 3 : 금광석

북한에서는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 군부, 내각 소속의 무역회사가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일성정치대학,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등에 소속된 외화벌이 회사는 특수기관 중에 특수기관에 속한다.

그 중에서 16(일육) 정치학원 A출장소의 사례를 소개한다. 여기서 16은 김정일의 생일 2월 16일에서 2자를 생략한 숫자이다. 이 16정치학원은 대남연락소 소속의 특수기관으로 다른 기관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나 이 대학 또한 다른 특수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자 학교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때 정치학원 총장은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와크'를 중앙으로부터 부여받는다.

이때 총장은 외화벌이를 할 자금과 능력이 없다. 이때 16(일육) 정치학원 총장과 인맥이 있는 두터운 돈주가 금광석을 캐서 운영자금을 받치겠다고 제안을 했다. 이 외화벌이회사는 학교유지, 교직원 및 학생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임무이다.

우선 돈주가 학교에 금을 받치자면 금광석을 직접 개발,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돈주는 16정치학원 총장의 허락 하에 해주시 도 소재지 아래 금이 많이 나오는 림산군, 옹진군, 태탄군이라는 곳에 가서 금광을 탐색하러 간다. 먼저 국가지질 탐사대라는 곳에 가서 광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문한다. 물론 금광은 미개발지여야 한다. 여기서 미개발지의 의미는 국가가 수지가 맞지 않아 포기한 광산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측면에서 보면 투자가치가 큰 광산이다. 이러한 광산은 북한 전역에 퍼져있다. 예를 들면 무산광산의 경우, 내각 관할 무산광산의 주변에 광맥이 널려있다. 이러한 곳을 개인이나 무역회사가 가서 개발 허가권을 따고 개발을 하는 것이다.

우선 돈주는 도 지질탐사대에 뇌물을 주고 매장량을 알아본다. 이들에게 개발조건이 좋고 매장량이 많은 지역을 선별해 달라고 의뢰한다. 이렇게 광산 개발 권한을 승인받기 위해서 도장을 스물 몇 개를 받는다. 그래서 광산개발권을 얻는데 보통 두 달, 석 달이 걸린다. 나의 경우 광산 개발권을 따기 위해 투자한 돈이 총 300불이다. 물론 이것은 뇌물이다. 이것은 매장량에 따라 다르다. 큰 광산이면 500불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천불, 만불씩 준다.

입지가 좋은 곳에서 광산 개발권을 획득한 돈주는 우선 설비를 갖추고 노력을 채용한다. 설비는 중국에서 들여오고 노력은 리 협동농장의 관리원장 혹은 리 당 비서에 가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다. 왜냐하면 어떤 농장이든 비상 군사노력으로 반드시 30명 정

도의 청년들이 상비하고 있다.

매 농장원들마다 일 년에 충성금 1그램을 당에다 받쳐야하는 과제가 떨어진다. 그러나 농장 원들이 농장 일을 하면서 틈을 내어 사금을 캐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이 농장 원들의 금 과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리 당비서에게 제안한다. 그것은 우리에가 그리 많지 않은, 부담되지 않는 숫자이다. 100그램에서 150그램 정도밖에 안된다. 이 계획만 농장에 수행하면 당 비서는 사장에게 대신 노동력을 농장에서 대 준다. 리 당 비서 또한 농장원들의 금 과제 계획을 수행하면 본인의 업적이 되므로 노동력 지원을 흔쾌히 수락한다.

동원된 노동자들에게는 월급을 준다. 희망에 따라서 현금 또는 현물로 준다. 보통 월급은 쌀 값 시세에 따라 결정된다. 한 달에 보통 쌀 30킬로의 가격으로 환산하여 준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양할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한 세대에 4명이다. 따라서 한 세대가 먹을 식량은 한 달에 30킬로 정도이다.

원래 이 30명 중 누군가 일이 생기면 다른 노동자로 항시 대체 할 수 있는 체제이다. 리 당 비서가 그렇게 보장해 주기로 약속 했다. 그러나 거의 같은 노동자들이 고정되어 일을 한다. 모두가 최소한 가족들의 식량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 일자리를 다른 사람과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공장은 24시간 가동한다. 노동자들은 한 조에 10명씩 3교대가 일한다. 한 조당 8시간 일을 한다. 굴 안을 발파해서 금광석을 광차에 실어 내오면 그것을 자그마하게 사람 손으로 깬다. 깬 광석은 원통이 된 파쇄기 안에 넣어 밀가루처럼 가루로 만든다. 그것을 기술자 손을 거쳐 시약처리를 해서 금을 만들어 금을 생산한다.

이렇게 광산 옆에 별도로 금 생산 공장을 차린다. 그 이유는 순도를 높여 무게와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국경으로 광석을 나르는 트럭 운반횟수가 줄어들어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장을 차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금을 생산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금광석 그 자체를 그냥 중국에 넘기는 것 보다 금광석에서 금을 생산하면 더 많은 이윤이 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금광석에서는 금뿐만 아니라 반드시 은이 함유되어 있어 은도 함께 생산하여 팔면 이윤이 광석으로 넘기는 것 보다 몇 배가 남기 때문이다.

물론 금을 개인이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원래 기관으로부터 할당받은 것도 금이 아닌 금광석이었다. 이것을 중국에 넘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산한 금광석은 특별히 순도가 높아 금으로 만들어 팔면 몇 배의 이윤이 남아 이것을 사장이 직접 신의주에 가서 화교에 넘겼다. 금을 사려는 화교는 신의주에 많다. 대신에 우리는 순도가 낮은 금광

석을 타 지역에서 들여와 액상 계획만 맞추었다.

이와 같이 사장이 금을 가지고 국경을 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속한 기관이 당 기관에서도 특수기관었기 때문이다. 대남연락처소속으로 간부들이 달고 다니는 완장과 뱃지가 있다. 그걸 달면 아무도 못 건드려 어디든 간다. 그래서 외화벌이를 할 때 특수기관의 이름을 빌리는 것이다.

물론 금을 얼마만큼 생산했는지는 아무도 알 길이 없다. 노동자들은 단지 분쇄기에 돌을 넣을 뿐, 광석이 가루로 변하여 시약처리 되면 금이 얼마 생산되는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생산량은 사장, 부사장, 그리고 기술자 3사람 밖에 모른다. 기술자 또한 80%까지 금을 수거할 수 있을 때까지 기술을 인수해 주면 계약을 종료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보통 기술자를 고용하는 데는 금 300그램이지만 초창기는 기술자가 없어서 거액을 주고 초빙해왔다. 이들은 계약이 끝나면 또 다른 금 광산으로 옮겨가 많은 돈을 번다.

뿐만 아니라 벽성군 등 등 금이 많이 나는 주변에서는 농장 원들이 금을 캐서 자전거나 차에 싣고 우리한테 온다. 그러면 우리는 톤당 샘플을 떠서 가치를 파악하여 가격을 매겨서 얼마를 준다. 캐는 사람들은 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대략 얼마의 가치를 가지는지 바로 안다. 우리는 이 광석도 받아서 금으로 생산해 내다 팔았다. 금강이 있는 주변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무수히 많아 경쟁도 심하다.

(4) 사례 4 : 석탄(무연탄)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산하4과 소속 순천무연탄 기지를 소개한다. 이 기지의 사장은 평양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탄광기지뿐만 아니라 몇 개의 기지를 가지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기지의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지령만 내릴 뿐 사실상 기지운영은 기지장에게 위임한다. 이때 기지장은 사장이 임명하고 기지의 직원들은 기지장이 임명한다. 서로 외화 벌이하는 기지에 적을 두려고 한다.

물론 사장은 광산의 실질 소유주다. 이러한 무역회사 소속 사장들은 돈을 가지고 외화를 벌 수 있는 기지를 탐색하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닌다. 우리 사장은 석탄기지 이외에도 원산의 수산물 기지, 혜주의 광석기지 등 최소한 5개 이상의 기지를 가지고 있다. 이 기지들은 사장이 모두 돈을 주고 산 것이다.

일단 시장은 원천 기지 지점을 정하여 순천으로 왔다. 사장이 순천에 온 이유 또한 폐갱을 사기 위해서이다. 엄밀히 말하면 폐갱의 광산 개발권을 사기 위해서이다. 아무리 인민무력부 산하의 무역회사 소속이라고 해도 국가적인 문서가 있어야 한다. 폐갱은 국가가 버린 갱을 말한다. 그러나 폐갱이어도 가치가 있는 갱이 북한에는 많다. 국가에서는 조금 캐먹다가 필요 없으면 다른 데로 가고 손해 보는 공간이 많다. 개인이라면 열심히 끝까지 캤을 것이다. 이러한 폐갱을 개인들이 사서 개발하는 사례가 북한에는 부쩍 늘었다. 사장은 결국 순천에서 폐갱을 모두 2개 구입했다. 한 개당 3천 달러가 들었다. 또한 사장은 탄을 캘 수 있는 설비를 만드는데도 투자하였다.

그러나 탄광의 개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몇 달이 걸렸다. 그래서 사장은 순천에 와서 숙식을 해야 하는데 숙식할 장소를 알아본 결과, 도 인민일보 기자였던 권력 있는 사람의 집을 소개받아 거기서 3달가량 머물면서 기지를 탐색하였다. 이러한 인맥으로 탄광의 기지장은 바로 인민일보기자의 딸이 되었다.

기지장은 갱장, 검탄, 자재지도원, 식모, 창고장 등을 외부에서 고용하였다. 특히 외부에서 고용된 자재지도원의 역할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민수용 탄을 국내에 팔아 탄광 유지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지에서 생산된 탄은 수출용과 민수용 탄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수출용 탄은 중앙에 받치고 즉 계획을 수행하고, 나머지 내수용은 팔아서 설비유지, 종업원 월급 등기지안의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지안의 운영 자금은 자재지도원이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재지도원은 기지장이 시장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을 외부에서 선발한다.

자재지도원은 탄광에서 받은 탄을 주로 인맥을 이용하여 판다. 주로 석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개인기업에게 팔았다. 예를 들어 사탕, 증류, 신발 장사들이다. 증류장사의 경우 이틀에 한차씩 쓴다. 최소한 10톤, 20톤을 쓴다. 그 다음 타도에 간다. 순천 외의 지역에

나가서 팔면 두 배, 세배 이상의 이윤을 얻고 팔을 수 있다. 탄이 나지 않는 지역에서 탄은 매우 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타 시장의 거간꾼에게 넘기고는 반드시 다음을 위해 전화번호를 받아온다.

특히 판이 잘 팔리다가도 중국이 수출 문만 닫으면 탄은 시간별로 내려간다. 아침에 1톤에 2만 오천원이었던 탄이 저녁이 되면 2만으로, 다음날 아침에는 만 8천원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기지에서는 기지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없이 낮은 가격에 국내에 판다. 국내 주민들은 이때를 가장 좋아한다.

이때 돈 있는 사람들은 탄을 대량으로 사다가 '토장(土場)'에 묻어 놓는다. 탄을 캐는 산지가 있으면 반드시 탄을 쌓아 놓는 토장이 있다. 토장에다 탄을 파는 것이다. 그러면 토장에 개인장사들이 와서 탄을 사간다. 동시에 기지들은 수출할 때 탄이 모자라면 이 토장에서 석탄을 대량 산다. 나에게도 이 때가 기회이다. 가격이 폭락했을 때 몽땅 사서 토장에 쌓아 놓았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판다. 시기별로 가격을 달리하니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한다. 수출이 안 되면 석탄 값이 내려가기 때문네 최고로 좋다고 한다. 그러나 수출업자는 최고로 불리하다.

제 4장 북한무역회사의 파급효과

제 1절 판매소와 도·소매시장의 발달

무역회사들은 1990년대 초기 식량과 생필품을 날라다 상부기관에서 내린 지령을 수행하였다.[13] 다시 말하면 아직 물류 창고가 생기지 않아 무역회사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미비하였다. 그러나 각 도에 있는 무역회사 지사에 상품이 집중되면서 각 지사에는 무역회사 소속 물류창고가 생기고, 거기서 물자교류시장이 생겨났다. 전국의 돈주들이 무역회사 물류창고로 몰려들어 물건을 대량으로 도매해갔기 때문이다. 이 상품들은 전국 각 시장의 거간에 넘겨지고 거간은 다시 시장 상인들에게 소매로 넘기면서 소비재시장이 확대·팽창되었다. 즉 무역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외화벌이가 활발해 질수록, 물류가 많이 국내로 유입될수록 거래가 많아지고 소비재 시장의 규모도 커지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함경북도 청진시 남강판매소를 들 수 있다. 남강판매소에는 전국 각지에서 도매상들이 모여들어 물건을 대량 구입하여 전국 각지로 흩어져 각 지역 종합시장의 상인들에게 도매, 소매로 넘기면 소매상인들이 종합시장에 앉아서 파는 구조이다.

특히 북한 당국(김정일)은 19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주민들의 식량배급이 어려워지자 회사에서 자체로 먹고 살라는 방침을 내렸다. 동시에 식량배급제의 대안으로 '쌀시리'를 미봉책으로 제시하였다.[14] 쌀시리는 국가기관, 기업소의 하부단위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무역항이나 국경지대에 가서 식량을 외화로 구입하여 소속 기관 기업소 종업원들에게 배급하도록 하는 일종의 전 인민적 배급제에서 기관이 책임지고 배급을 주는 기관배급제로의 변질이다. 따라서 식량 구입권한을 부여받은 기관기업소들이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 국경지역에 몰려들어 무역회사를 통해 들여온 식량을 사 들어갔다. 그런데 이러한 쌀시리는 국경지역 및 주민이 밀집된 대도시에서 발달하였기 때문에 기관, 기업소가 일단 식량을 구입하러 이 지역을 다녀오면 추가적인 상업, 유통, 정보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국경과 내륙시장의 연계를 촉진시켜 전국을 하나의 통일된 시장으로 형성하고, 국내외 정보네트워크도 가능하였다. 반복적인 대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신용거래가 발생하고 쌀시리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유동인구와 자본이 집중되면서 노동, 자본, 정보시장이 싹텄다. 즉 기관 기업소들은 쌀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재도 구입하고 돌아갔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 쌀 판매가 급격히 팽창하고, 판매소가 활성화 될수록 교역이 국경지대로까지 확대되면서 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다양해지고 전국의 수많은 시장이 신경망처럼 다양한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어 외국물품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북한의 시장이 단일화되어 갔다.

---

13) 조사결과, 무역회사를 통해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으로 들어오는 물품 중 당국이 제한하는 품목은 상당히 적다. 예를 들어 북한은 전기가 부족하여 전열기류의 수입을 가끔 통제하는 정도이다. 북한에는 물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역회사들이 수입된 물건에 대해서는 통제를 덜 한다. 세금도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다. 식량 등 전략물자의 수입 통제도 거의 받지 않는다.

14) 정은이, "북한 공설시장의 외형적 발달에 관한 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23권 1호(2011b, pp.219-222.

제 2절 외화상점의 몰락

원래 무역회사를 통해 국내로 들여온 물품은 외화상점에만 유통하게 되어 있다. 또한 종래에는 외화상점의 물품들도 일본상품이 대부분이었다. 품목 또한 가전제품이나 옷 등의 소수품목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본과의 무역이 중단됨에 따라 무역대상국이 중국으로 전환되었으며 모든 기관에서 외화벌이를 할 수 있게 되자 무역 품목이 다양해지는 등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무역회사가 각 지역에 판매소(지사)를 설치하여 상품을 직접 유통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외화상점이 경쟁력을 잃었다. 즉 무역회사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들여와 판매소(물류창고 및 매점)에서 도매로 도매상들에게 넘기면서 외국에서 들여온 물건들이 손쉽게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수입상품이 무역회사의 판매소를 거쳐 전국의 종합시장으로 유통되는 경로(channel)로 확대, 발전한 것이다. 즉 판매소가 도매상점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외화상점체계는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1990년대부터 외화상점에도 중국산이 점유하게 되면서 시장과 차별성이 없어졌다. 주민들은 이제 외화상점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더욱이 외화상점의 경우 건물세 등으로 가격이 시장보다 비쌌다. 즉 도매상점의 경우 주로 사무실과 상품보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이므로 소매상점과는 큰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소매점은 점포 이미지(store image)를 부각시켜 고객을 흡수하는 역할도 수행하므로, 이의 입지와 점포구조 및 내부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상품매매업의 점포만을 뜻한 물건이나 자재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외화상점체계가 유명무실해지고 도매시장이 발달하고 이에 따라서 소매시장도 확대되어갔다.

제 3절 수공업의 발달

일반적으로 북한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의 최소 60%에서 최대 90%가 중국산이라고 한다. 그러나 탈북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결과, 최근 내륙지역에서의 상황은 국경지역과 상황이 다르다. 국경지역의 경우 여전히 중국에서 들여온 물건이 강세지만 내륙지역의 경우 담배, 신발, 옷, 사탕 등을 개인이 생산하여 시장에 내다파는 상품이 증가하였다. 이른바 개인기업의 증대이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무역회사들을 통해 들어오는 상품이 많은 만큼 종전에 비해 원료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사되었다.

특히 신의주의 경우 해방 전부터 수공업자들과 소상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소비도시였다. 또한 해방 후 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데 대한 정책에 의해 많은 공장들이 세워졌으며 주요공업부문으로는 기계공업, 화학공업, 방직 및 피복 공업, 일용품공업, 식료공업 등인데 이 공업부문들은 전국적 의의를 가진다.[15] 신의주시 주요공장기업소들의 조업 년대를 보면 표 4와 같다.

15) 즉 신의주시는 1989년 현재 25개의 중앙공업기업소와 62개의 지방산업공장이 있는데 1980년도 신의주시 공업총생산액가운데서 중앙공업은 88%, 지방공업은 12%를 각각 차지하였다. 교육도서출판사 편, 『조선지리전서: 평안북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1989). p. 439.

<표 4> 주요공장기업소들의 조업연대

조업 년대	공장, 기업소 이름
해방 전	동양금속공장(락원기계련합기업소), 기롬공장, 무수알콜공장(마이싱공장), 팔프공장
1945-1950	종합기계공장, 화장품공장, 신발공장, 판유리공장, 타올공장, 장공장, 종합섬유생산협동조합, 철제일용품공장, 어린이식료생산협동조합, 가구생산협동조합, 만년필생산협동조합
1951-1960	신의주방직공장, 신의주모방직공장, 신의주화학섬유련합기업소, 방적기계공장, 3.8피복기계공장, 8월9일 공장, 종이공장, 법랑철기공장, 수지일용품공장, 영예군인편직공장, 과자생산혀동조합,5.1식료생산협동조합, 압강식료생산협동조합, 후방가족피복공장, 남신의주술공장, 자동차수리공장, 염색설비부속품공장, 제지기계공장
1961-1970	압강기계공장, 식료기계공장, 압강종이공장, 영예군인학용품공장, 옷공장, 가정용품공장, 악기공장, 운동구공장, 신발부속품공장, 벽돌공장, 전기용품공장, 구강재료공장, 화학공장, 압강화학공장, 다이야공장
1971-1980	압연공장, 남새 및 과일가공공장, 원주필공장, 독공장, 철도영예군인공장, 신의주석재공장, 제약공장
1980 이후	신의주탄광, 탄산소다공장, 자동화기구공장, 자동화요소공장, 재봉사공장

출처: 교육도서출판사 편,『조선지리전서: 평안북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1989). p. 438.

신의주시는 특히 종이를 생산하는 신의주시제지공장과 펄프공장이 있고, 화장품을 생산하는 신의주화장품공장이 있다. 신의주시의 화장품 공장은 그 중에서 "봄향기"라는 '살결물'로 유명하며, 외화벌이사업의 주요한 사업이 되고 있다. 일용품을 생산하는 신의주 일용품 공장과 신의주 신발 공장 등 30여 개 공장들이 모여 있다. 공업기업소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면적과 산업건축면적에서도 기계공업, 방직공업, 화학공업이 60%이상 차지한다. 즉 신의주시는 경공업이 발달하기에 유리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신의주에서는 개인 옷 가공기업들이 발달하였다. 특히 북한의 각 도에는 수출피복가공공장이 있다. 이는 구소련 때 전문 원피스 등을 수출하기 위해 만든 공장이다. 더욱이 조총련을 통해 들여온 재봉 등의 기계들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의복을 생산하는 기술자들도 많다.

이와 같이 신의주시에서 무역과 수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1990년대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난 변화는 평양의 관문인 평성시가 1990년대 이후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원래 평성시는 평안남도의 도 소재지로, 과학연구단지조성을 위해 1960년대에 만들어진 신도시이다. 과학의 메커로 일컬어지며 과학원을 비롯해 25개의 연구소와 이과대 등 과학자 양성기관들이 밀집해 있다.[16]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신의주를 통해 중국의 원자재가 들어오자 평성에서는 개인 옷, 담배 가공업 및 기계 수공업도 함께 발달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평성시장에서는 중국에서 들여온 기성옷(중국에서 수입해 들어온 완성된 옷) 보다는 국내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기성복과 똑 같이 만들고 있으며, 어떤 상품의 경우 중국산보다 더 잘 만들어 질이 좋아 비싸게 팔린다. 중국산의 경우 질이 좋지 못해 내구성이 부족하지만 개인이 만든 상품은 재료도 더 많이 넣고 정성들여 만들어서 오래간다. 또한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옷도 중국에서 옷감만 수출되면 바로 모방하여 만든다.



<사진13 > 평성시장 옆에 위치한 광장 버스 터미널
출처: Google Earth 필자 정은이 검색

특히 이제는 담배 판매하는 도매업자, 옷을 판매하는 도매업자 등 상인 간 분업이 철저히 되어 있어서 각 지에서 온 도매상인들은 시장에서 헤매지 않고 바로 전문 업자의 집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 특히 평성은 전국에 상품을 배분할 수 있는 삼각지로, 평성

16) 이 시에는 과학원이 있어 과학의 메카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교육기관으로는 명신사범대학·평성교원대학·봉화이학대학·공업대학·수의축산대학·광산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과 문화고등중학교를 비롯한 각 급 학교가 있으며, 유치원·극장·도서관·문화회관·평성경기장·중덕산체육관 등이 있다. 교육도서출판사 편,『조선지리전서: 평안남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1989).

을 중심으로 택배와 같은 서비스가 싹트고 있다. 사진 13에서와 같이 평성에는 각 도급으로 나가는 소행버스가 있다. 2010년 최근 북한에 다녀온 조선족 대북사업가에 따르면 이 버스가 승객 수송 외에도 택배와 비슷한 짐 배달 업무도 대행해 준다. 예를 들어 타지의 담배 상인이 평성의 담배 도매상에게 전화를 걸어 담배를 부탁하면 평성에 있는 버스를 통해 배달이 된다. 이 버스회사에서는 택배비를 운송 수수료로 받는다. 이러한 교통망을 통해 평성에서 만들어진 옷, 담배 등에 전국으로 분포된다.

그러므로 전화는 상인들에게 필수이며 이제는 예전처럼 힘들게 등짐을 지고 올 필요 없이 전화와 신용만 있으면 택배 업무를 수행해 주는 버스를 통해 물건과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단계에까지 도달했다.

제 4절 도시의 발달과 지역 간 격차

<표5> 단동지역 북한 수출입현황(단위 만 달러%)

	수출액	수입액	수출증액	수입증액
1996	8660	2150	11,25	−10.86
1997	12028	3013	38.89	40.14
1998	13189	3850	9.65	27.78
1999	14110	3805	6.98	−1.17
2000	15310	3100	8.50	−18.53
2001	17080	3020	11.56	−2.58
2002	18900	3300	10.66	9.27
2003	20900	5900	10.58	78.79
2004	23900	7500	14.35	27.12
2005	23600	19916	−1.26	165.55
2006	29540	16726	25.17	−16.02

신의주시는 주민수로 보아 전국적으로 다섯 번째를 차지하는 도시이며 도 주민총수의 12.9%를 차지한다. 신의주시에는 35개의 동과 13개의 리가 있는데 도시에 해당하는 동에는 주민총수의 84.6가 살고 있으며 농촌에 해당하는 리에는 주민총수의 15.4%가 살고 있다.[17] 신의주도시는 한군데 모여 이루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3개 지역으로 갈라져 있다. 도시의 기본구역(역전동을 비롯한 29개 동)은 제방 안에 건설된 지역 즉 원래 신의주시를 이루고 있던 지역으로 현재 당, 정권기관, 교육, 문화기관과 방직공장, 화학섬유공장 등 큰공장, 기업소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시 주민총수의 65%가 살고 있다. 1983년 현재 시 주민수의 89.5%가 로동자, 사무원이고 협동농민이 9.5%, 기타 협동조합원주민이 1%이다.[18]

이러한 환경의 도시가 1990년대 이후 무역도시로서 급성장했다. 이는 단동지역 북한 수출입현황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2006년 현재까지 단동지역 북한 수출입은 꾸준히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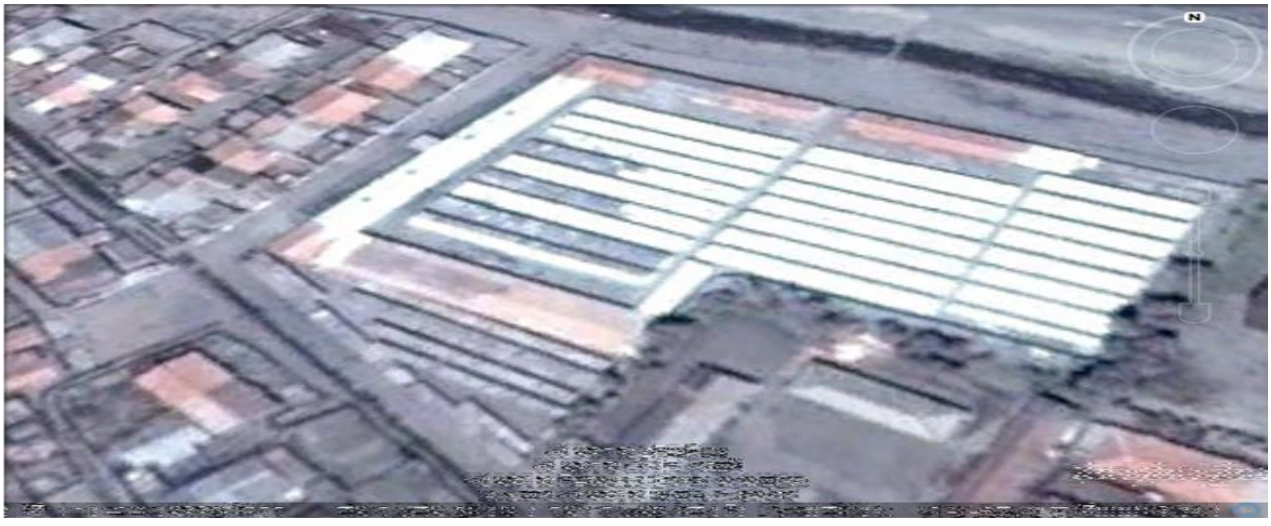
17) 이는 89년 현재의 통계이며, 2008년 현재는 49동(역전동, 압강동, 남상동, 남하동, 친선1동, 친선2동, 신원동, 본부동, 판문동, 청송동, 백사동, 근화동, 채하동, 5·1동, 남중동, 남서동, 백운동, 개혁동, 남송동, 신남동, 해방동, 평화동, 신포동, 민포동, 수운동, 마전동, 동하동, 동중동, 동상동, 방직동, 련상1동, 련상2동, 류상1동, 류상2동, 와이동, 락원1동, 락원2동, 락청1동, 락청2동, 선상동, 송한동, 석하1동, 석하2동, 풍서1동, 풍서2동, 백토동, 남민동, 연하동, 고성동)과 9리(상단리, 하단리, 중재리, 삼교리, 삼룡리, 성시리, 포성리, 류초리, 다지리)로 이루어져 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화문제연구소 편, 『조선향토대백과』, 서울: 평화문제연구소(2005).

18) 교육도서출판사 편,『조선지리전서: 평안북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1989). pp. 446−447.

가하고 있다(표 5참조). 바꿔 말하면 단동과 신의주간의 접경무역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사실 1990년대 초만 해도 북한무역의 주체는 화교, 중국연고자, 중국 상인(조선족) 등 보따리 무역상인이었다.[19] 즉 1980년대 초부터 친척방문으로 오게 된 중국 조선족들은 북중 국경지역을 왕래하면서 장사를 하였다. 초기에는 조선족의 방북은 단순히 친척의 도움을 받아 비공식적으로 북한에서 장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장사를 위한 방문으로 목적이 전환되었다. 이들은 한번 북한에 오면 한 달 동안 친척집에 머물면서 친척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접경지역 주민을 상대로 친척집에서 물건을 사고팔았다. 그러나 1980년대 중 후반 이후 북한에 장사하러 오는 중국조선족의 수가 급증하자 이들은 점차 공개적인 장소에 나와서 직접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도매상이 되었으며 결국 남양, 회령, 무산, 혜산, 신의주 등 북한의 주요 국경인접 군읍들에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인 전용시장을 형성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이들 도시의 시장들은 한때 '북한의 홍콩 시장'이라 불릴 정도로 번성하였다. 특히 이들은 북한 상품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들여온 일본상품을 그대로 중국에 가져가 팔아 매매 차액을 획득하는 소규모 보따리 무역상이었다. 이른바 중계무역상이다.

그러므로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의 도시는 무산, 회령, 혜산 등 국경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이와 같이 무산, 회령에 상품이 집중되면서 함경북도의 도 소재지인 청진시에 소재하는 수남 시장이 도매시장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신의주시 또한 북한에서 화교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살고 있어 신의주 채하시장이 전국 최대의 도매시장이 되었다.



<14> 함경북도 무산시장
출처: Google Earth 필자 정은이 검색

19) 정은이, "동포경제네트워크 형성과정과 북한의 개방: 북중 접경지대 재중조선인과 중국 연고자의 삶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17집 1호(2012b, pp.128-147 참조.

그러나 1990년대 각각의 무역회사가 물류창고를 각도에 설치하고 판매소의 기능을 하게 되면서 평성시장이 북한 최대의 도매시장으로 기능을 하였다. 이는 국경지대에 위치한 무산시장과 평성시장의 외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사진 14 무산시장과 15평성시장을 비교해 보면 외형적으로도 평성시장이 훨씬 더 발전한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15> 평성시장
출처: Google Earth 필자 정은이 검색

물론 청진의 수남 시장과 신의주의 채하시장이 여전히 전국의 도매시장으로서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사진 16,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의주 채하시장과 수남 시장의 외형을 볼 수 있다. 신의주 채하 시장의 경우 시장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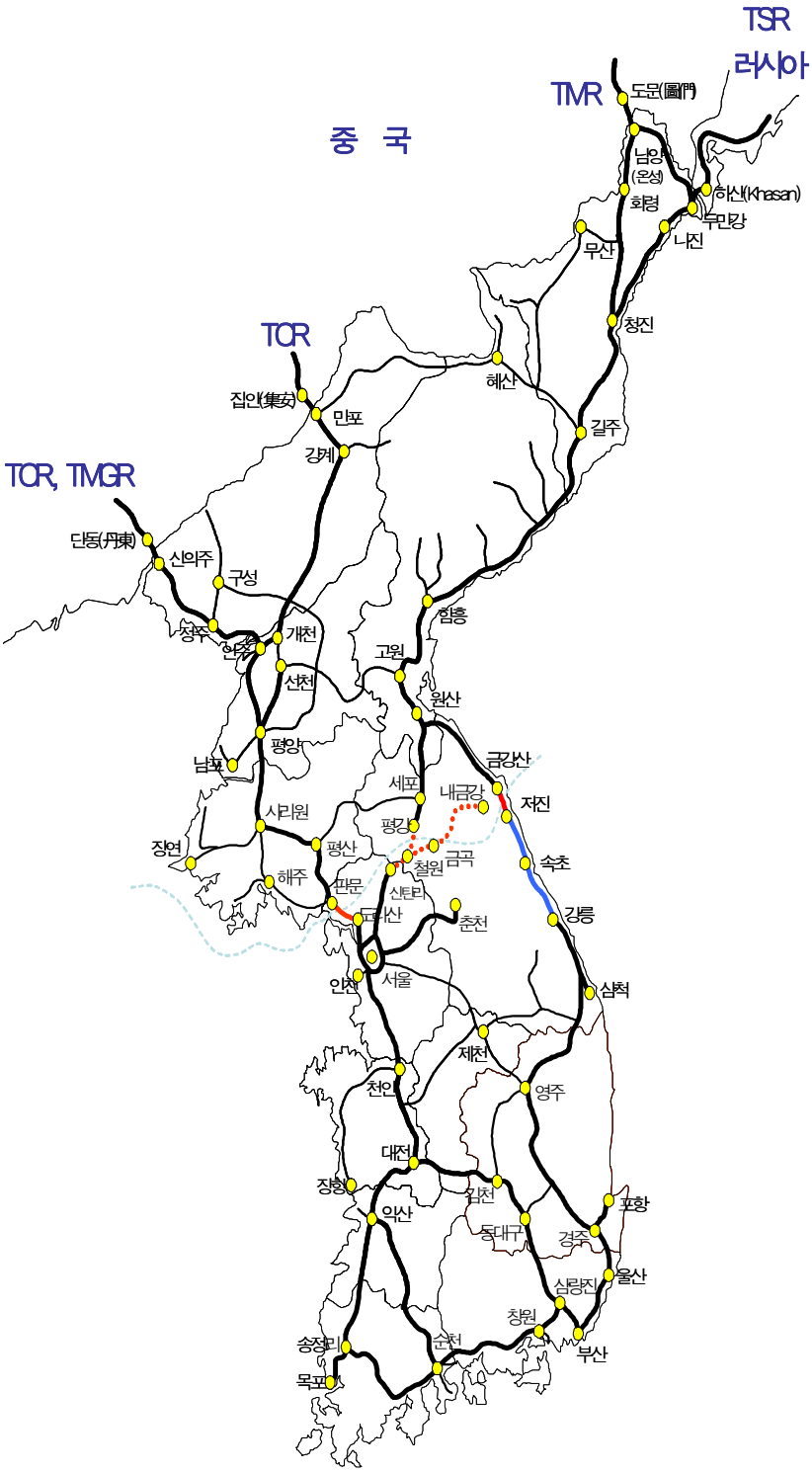
<사진 16> 평안북도 신의주 채하시장
출처: Google Earth 필자 정은이 검색



<사진 17>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 시장
출처: Google Earth 필자 정은이 검색

그러나 평성시장의 경우 90년대 초만 해도 부각되지 않은 도시였으나 평성은 무엇보다 평양과 가깝다는 점, 철도망이 전국 각지로 잘 연결되어 있는 점 등을 원인으로 현재 북한 최대의 도매시장이 되었다(지도 2).

한편 원산시의 경우 일본과의 무역이 활발하였을 때는 수출입 출구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곳을 통해 많은 일제 중고자전거, 중고자동차, 중고가전제품 등이 들어왔다. 뿐만 아니라 재일조선인들의 친척방문을 통해 많은 옷 등이 유입되었다. 그러나 일본과의 무역이 단절되면서 이곳 원산의 무역회사의 출장소들이 많이 철거하였다. 이제는 단지 원산항에서 잡힌 수산물을 수거하여 회령이나 무산, 나선 쪽으로 보내기 위한 출장소로서 역할이 축소되었다. 이는 무역상대국이 1990년대 들어 북중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변한 것이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TSR
러시아
TMR
도문(圖們)
중 국
남양
(온성)
화령
하산(Khasan)
무산
나진
청진
TCR
혜산
집안(集安)
만포
길주
강계
TCR, TMGR
단동(丹東)
신의주
구성
함흥
개천
고원
선천
원산
평양
남포
금강산
세포
내금강
저진
사리원
평양
장연
평산
금곡
속초
철원
해주
판문
신탄리
춘천
강릉
서울
인천
삼척
제천
천안
영주
대전
장항
원천
포항
익산
동대구
경주
울산
삼랑진
창원
부산
송정리
순천
목포

<지도 2> 남북한 철도연계

제 5절 노동과 자본시장의 맹아, 형성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노동자가 대중동원에 나가야 할 경우 본인이 속한 기관기업소에서 발급한 정지증명서를 떼어 지원 나가는 기관기업소에 제출해야만 배급을 탈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지도자의 우상화 작업과 함께 등장한 '외화벌이'사업으로 인하여 장기 노동동원의 개념이 특수해졌다. 예를 들면 수산물을 사례로 들면 다음과 같다.

"조개 철, 송이 철, 고사리 철이 되면 산지로 외화벌이를 하러 가기위해 주민들이 동원된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이렇게 먼 곳에까지 와서 동원되어 일을 하자면 식량이 걸린다. 외화벌이란 계획경제 밖에서의 노동력 유출이므로 외화벌이기간동안 드는 비용은 노동자들이 자체로 해결해야 한다. 대체로 동원기간 동안 아주머니들은 현지에서 조를 만들어 단체로 방을 빌려 자체로 숙식을 해결한다."(탈북자 I씨).

즉 주민들은 자비로 숙식을 해결하면서까지 계획경제 밖에서 움직이는 외화벌이에 참가한다. 그 이유는 바로 일한만큼의 대가가 지불되기 때문이다. 외화벌이에 동원된 주민이 송이버섯, 약초 등 채취한 물자를 외화벌이수매소에 넘기면 그 대가로 식량, 설탕 심지어 TV나 양복기지 등 평소에 배급을 통해서 입수하기 어려운 수입물자가 지급된다. 이러한 물자는 현금으로 가장 빨리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즉 주민들은 이를 전부 소비하지 않고 남는 부문, 잉여부문을 장마당에 내다팔아 필요한 생필품을 조달하는 데 쓴다. 즉 외화벌이 회사의 증대는 사적 고용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면서 전문적으로 삯을 받고 일하는 싹벌이 노동자, 계절노동자 등이 생겨났다.

"아주머니들은 나진·선봉과 같은 곳에 조개를 캐러 아예 2, 3년씩 가서 일한다. 어디 가냐고 물으면 그냥 짧게 '삯벌이'하러 간다고 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해한다. 안면이 생기면 계속 일자리가 생긴다. 갯벌에 가면 '외화벌이'차가 와서 대기하고 있다. 평양과 같은 곳은 상상도 못하지만 지방 도시에서는 이런 일이 대중화되어 있다."(탈북자 I씨).

뿐만 아니라 1990년대 후반부터 기업소나 공장, 군부대 등의 기관명의를 빌려 개인이 '회사'를 차려 기관과 회사가 상호 공생관계를 갖는 일이 일반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가공·조립의 차원을 넘어서 조잡하지만 기술자를 고용해 재화를 생산하는 '회사'도 출현했다. 예를 들면 강선재강소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차린 탈북자 K씨는 "전기동을 만들어 팔았다. 전기동은 일반 동보다 훨씬 비싸게 중국으로 팔린다. 장마당에서 번 돈을 밑천으로 건물을 빌리고 기계와 자재를 구입하여 공장을 차렸다. 전기는 강선재강소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노동자도 고용했다. 기술자 2명에 일반 노동자 10명을 고용했다. 임금은 일반노동자보다 5~6배 정도 더 많다. 여기 노동자들은 강선재강소와 상관없는 사회의 유휴노동력이다."고 서술했다. 게다가 1990년대에는 경제난과 함께 사실상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특권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기관까지도 '외화벌이'의 권한이 부여

되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산하에 '무역과'를 조직하여 실질적으로 기관의 생존을 뒷받침 해줄 만한 역량을 가진 '무역회사'를 모집했다.

이와 같이 북한 공장가동률이 30%이하라고 하지만 계획 외 부문 즉 외화벌이를 통해서 잉여 노동력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노동자들이 무역회사를 통해 외화를 벌기 위해 대거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실 중국은 이미 단순 노동력부족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한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예를 들면 단동 지역 조사결과, 북한의 서해안에서 잡은 수산물은 동강항(단동시에서 30분 거리 떨어진 곳)으로 집결된다. 이 수산물은 다시 단동시 신개발구에 위치한 수산물가공공장으로 운반된다. 그러나 이곳에는 가공할 만한 노동력이 없다. 여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15시간의 노동을 회사에서는 요구하지만 3시간도 일하기 힘들다고 한다. 따라서 수산물 수출을 담당하는 평양도 무역회사에서는 북한 노동자만 해도 300명을 파견하여 이 공장에서 일을 시키고 있다. 이른바 무역회사가 이제는 인력까지도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유명한 예술가들도 필요에 따라서 현장(외국)에 나와서 외화벌이를 한다. 예를 들어 평야에 위치한 만수대창각사의 경우 미술가, 화가, 조각가, 조형예술가 귀국속 등 각종 방면의 예술가들이 있다. 여기서 만수대창각사 소속 427무역회사는 만수대창각사에서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자재를 보장해 주고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들을 해외에 되팔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서이다. 이른바 해외에 나와 있는 영업부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에 화랑 및 전사관 까지도 갖추고 필요에 따라서는 예술가들도 직접 나와서 3, 4개월 정도 구매자가 요구하는 대로 같이 작업을 하여 작품을 완성하여 물건을 판 후에 다시 평양으로 돌아간다.

북한 무역회사들이 기존에도 인력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었으나 이는 중국정부에서 허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구 또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 이를 중국에서 허가한 것이다. 앞으로 12만 명 가량이 계약이 되고 있으며 중국의 단동 세관으로도 하루에 50명가량의 북한 노동자들이 오고 있다. 특히 중국의 남방 피복 가공공장에서는 북한의 노동자들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제 6절 암달러 시장의 발달

북한에서 '돈 장사'는 외화의 암거래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1950년대 말부터 1984년에 걸쳐 실시된 북송사업을 통해 북한에 건너오게 된 귀국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20] 1970년대 후반부터 주민의 생필품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한편 외화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는 외화상점이 생겼다. 여기서는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서 맛내는 조미료에 이르기까지 일반주민이 배급이나 장마당을 통해서 입수하기 힘든 소비재를 판다. 더욱이 관혼상제와 같은 전통행사를 치러야 할 때 필요한 물품도 여기서 팔아 일반주민의 외화상점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생겼다.

그러나 외화를 소지할 수단이 없는 일반주민은 외화벌이동원에 참가를 통해서만 비로소 외화상점에 대한 접근기회가 주어졌지만 1980년대 이후 외화를 소지한 귀국자가 늘면서 이들과의 외화 암거래를 통해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즉 해외 연고자를 둔 귀국자는 1970년대 말부터 해외송금을 받을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친척방문단'이 조직되어 '왕래'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이를 매개로 북한으로 대량의 외화가 유입되었으며 이는 귀국자와 북한주민간 외화의 암거래를 발생시키는 동인이 된다.

이러한 외화의 암거래는 점차적으로 외화상점의 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수단에서 환차를 이용해 돈을 벌기 위한 형태로 변모했다. 예를 들면 적대계층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 탈북직전까지 중국에 사는 친척의 도움으로 '돈장사'를 시작해 막대한 재산을 모은 탈북자 R씨는 "함경북도 회령에서는 1만 엔 당 북한 돈 8천5백 원에 교환된다. 함경북도 길주에서는 6천5백 원 한다. 따라서 길주에서 일단 엔을 사서 회령에 가지고 가서 팔면 2천원(북한 돈)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 만일 엔화 4장을 바꾼다면 8천원의 이익이 떨어진다. 1991년 당시 한달 노임이 70원이므로 10년간 일해서 벌 수 있는 큰돈이다."며 돈을 벌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위조달러 거래도 많이 이루어진다. 이는 주로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가 하며 신의주 등지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탈북자 I씨는 "위조지폐 10장을 팔아달라고 군대로부터 위탁 받은 적이 있다. 이들은 청진에 있는 군대로 평양에 다녀오면서 부탁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장당 2천원에만 팔아 달라고 했다. 나는 장당 7천에 팔아 총 5만원의 이윤을 남겼다. 여기서 거래된 위조달러는 주로 광조우 등 중국의 남방지역으로 유입되어 쓰인다고 한다."고 서술했다.

이와 같이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 상인, 북한화교들의 장사증가로 외화상점 주변에 외화를 사고파는 전문 암달러상이 급격히 불어났다. 특히 신의주 외화상점 주변이나 채하시장, 청진시의 포항구역과 신암구역 외화상점 앞이 가장 심하였다.

그러나 이는 북·중국경무역의 증대가 일반주민의 외화수요량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2000년에 들어서는 환차를 통해 암달러 장사를 하여 부를 축적한 '돈주'들이 급격히 생겨났다. 이는 무역회사와 관련이 있다.

각 기관기업소 별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증대되면서 외화의 수요가 증가

---

20) 이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정은이, "재일조선인 귀국자의 삶을 통해서 본 북한체제의 재조명: 재일탈북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54권 1호(2009) 참조,

하였다. 예를 들면 북한으로부터 생필품 및 식량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기 위해서 외화가 필요하다. 부족한 외화는 개인 암달러상에게서 조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광산, 바다 등 개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달러로 거래해야 한다.

그러므로 무역회사는 지하금융업자들과 연계가 되어 있으며 무역회사의 확대는 암달러 시장을 확대한다.

제 5장 결론

이 연구는 북중 접경도시 신의주시에 대한 미시적 접근을 통해 북한 무역회사의 구조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외화벌이 실태, 나아가 북한경제구조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가 활용한 연구방법으로는 위성자료, 공간문헌자료, 탈북자인터뷰조사, 북한내부영상자료를 활용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이 연구에서는 북·중 접경조사를 하여 이러한 자료들을 상호 교차분석·검증하여 각각의 자료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보충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북한과 무역을 하고 있는 중국 단동의 무역회사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역으로 북한 무역회사의 실태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북한화교, 조선족, 한족에 대한 심층인터뷰조사를 실시하여 미시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중 무역에 대한 거시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무역회사는 본적으로 외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기업형태라는 점에서 상사 또는 무역회사와 유사하지만 내각이 아닌 주로 당, 군부, 내각 등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점, 특히 당, 내각, 군, 안전부, 주요 도급 기관 및 기타 주요 '특권기관'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 생산기지(공장), 원천기지(수산물, 약초 등) 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상품의 유통뿐만 아니라 생산의 기능까지도 겸비하고 있는 생산경제단위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점 수출할 수 있는 '와크'를 할당받지 못하면 무역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반 무역회사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무역회사는 1990년대 식량 배급체계의 붕괴이후 북한의 모든 기관에서 행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수출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식량, 생필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게 되었다. 초기 무역회사들은 식량과 생필품을 날라다 상부기관에서 내린 지령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각 도에 있는 무역회사 지사에 상품이 집중되면서 각 지사에는 무역회사 소속 물류창고가 생기고, 거기서 물자교류시장이 생겨났다. 전국의 돈주들이 무역회사 물류창고로 몰려들어 물건을 대량으로 도매해갔기 때문이다. 이 상품들은 전국 각 시장의 거간에 넘겨지고 거간은 다시 시장 상인들에게 소매로 넘기면서 소비재시장이 확대·팽창되었다. 즉 무역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외화벌이가 활발해 질수록, 물류가 많이 국내로 유입될수록 거래가 많아지고 소비재 시장의 규모도 커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무역회사가 각 지역에 판매소(지사)를 설치하여 상품을 직접 도매로 유통하면서 외화상점체계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는 수입상품이 판매소를 거쳐 전국의 종합시장으로 유통되는 경로(channel)로 확대, 발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역을 통해 종전에 비해 중국을 통해 옷감 등 원료를 대량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되자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즉 중국은 북한에게 일정 원료 공급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만 해도 북한무역의 주체는 화교, 중국연고자, 중국 상인(조선족) 등 보따리 무역상인이었으며 회령, 무산 등이 시장의 중심도시였으나 신의주나 평성으로 그 중심이 옮겨갔다. 1990년대 각각의 무역회사가 물류창고를 각도에 설치하고 판매소의 기능을 하게 되면서 평성시장이 가장 큰 도매시장으로 기능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성이 90년대 이후 성장할 수 있었던 동인은 무역회사에 있으며 그 무역회사의 배후에는 신의주라는 북중 접경도시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무역회사가 커질수

록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암달러 시장이 확대되었다.

즉 1990년대 이후 모든 기관의 외화벌이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외화벌이는 북한 경제구조의 한 부문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공적 기관의 상부에서 하부에 이르는 거의 모든 단위는 스스로 기관유지와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조달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사실상의 배급제 붕괴로 국가배급제가 기관배급제로 변질되면서 특권기관뿐만 아니라 공장·기업소 등 모든 기관을 망라하고 외화벌이회사를 설립하여 의존해 생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21)]

그러므로 북한의 경제는 동원, 계획, 시장 메커니즘이 중첩된 외화벌이형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가 내부적으로 상이한 독립적인 경제구획으로 상호 격리 분리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상이한 지배구조와 경제법칙이 작용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는 논리와 상반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다. 한의 경제는 동원, 계획, 시장 메커니즘이 중첩되는 구조로 상호 연계하여 영향을 미치면서 특이한 경제체제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1) 배급제의 붕괴가 모든 기관에 외화벌이를 할 정당성을 제공해 주었다(V).

<탈북자 인터뷰 조사명부>

이름	출생년도	학력	탈북시기	직업	출생지
A	1973	고등중학교	2008	탄광노동자	회령
B	1974	기능공 전문학교	2006	악기공장 노동자	회령
C	1959	고등중학교	1998, 2006	직포공장노동자	회령
D	1971	고등중학교	1998, 2004	악기공장노동자	회령
E	1981	고등중학교	2002	농장 원	회령
F	1974	고등중학교	2008	벽돌공장노동자	회령
G	1979	고등중학교	2008	탄광 노동자	회령
H	1967	고등중학교	1998	체육단원	회령
I	1974	고등중학교	2005, 2007	제지공장노동자	회령
J	1957	고등중학교	2009	구두공장노동자	회령
K	1967	고등중학교	2009	탄광노동자	회령
L	1982	고등중학교	2003	돌격대	회령
M	1956	고등중학교	2009	군대	회령
N	1940	전문학교	2003	탄광노동자	중국 왕청현
O	1971	고등중학교	2009	군대, 영예군인	회령
P	1962	대학교	2003	광산, 외화벌이 출장소 부소장	무산
Q	1973	고등중학교	2003	군대, 무산광산	무산
R	1961	대학교	2005	외화벌이지도원	신의주
S	1973	고등중학교	2007	수산물 도매	평성
T	1980	고등중학교	2001	돈 장사	무산
U	1951	대학교	1998	교원	무산
V		대학교	2004	사무원	사리원
W		고등중학교	2003	노동자	사리원
X	1965	대학교	2008	외화벌이지도원	신의주
Y	1951	고등중학교	2006	노동자	신의주
Z	1963	전문대(통신)	2007	주택관리원, 외화벌이지도원	순천

<참고문헌>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화문제연구소 편, 『조선향토대백과』, 서울: 평화문제연구소(2005).

교육도서출판사 편,『조선지리전서: 함경북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1989).

김일성,『김일성 저작집』 제23권. 평양: 로동당출판사(1982).

림금숙,“북한 자영업의 특징과 발전방향,”『통일경제』(2003)

사회과학원주체경제학연구 편, 『경제사전 제 1권』, 평양: 평양과학출판사(1986).

윤웅, 『북한의 지리여행』서울: 문예산책(1995).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서울: 삼성경제연구소(2008).

정은이, “북한의 자생적 시장 발전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 21권 2호(2009),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pp. 157-200.

------,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제 54권 1호(2011a), pp.220-283.

-------, "북한 공설시장의 외형적 발전에 관한 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 23권 1호(2011b), pp. 215~251.

-------, "2000년 이후 북한시장의 발전요인에 관한 분석-회령지역 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2012a).

------, "동포경제네트워크의 형성과정과 북한의 개방: 북중 접경지대 재중조선인과 중국 연고자의 삶을 중심으로”『한국동북아논총』, 제 17집 제1호(2012a), pp. 127~150.

최봉대·구갑우,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최완규 외, 『북한 도시의 위기 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2006), 서울: 한울 아카데미

최진이 편,“또다시 내 휘두르는 전국적 시장억제,” 『림진강』, 서울: 림진강출판사, 2008년 3월 제 2호(2008).

林金淑, "中朝边境贸易的现况及其对边境地区社会经济的影响"『延边大学学术会讨论文集』(2005).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A%B0%9C%EC%8B%9C: 2012.1.15 검색)

李佑泓. 『どん底の共和国―北朝鮮不作の構造』. 東京: 亜紀書房(1989).

金元祚. 『凍土の共和国』. 東京: 亜紀書房(1984).

朱建栄, "中朝関係の特殊性について", 渡辺利夫編. 『北朝鮮の現状を読む』日本貿易振興会(1997).

小木此正夫 編. 『北朝鮮ハンドブック』. 東京: 講談社(1996).

河合弘子. 『中国と朝鮮半島の経済関係』. アジア正経学会(1996).

Ⅴ·ペトロプ Ａ·スターソプ著, 下米伸夫·金成浩 역. 『金正日に悩まされるロシア』.東京：草思社(2004).

鄭雅英. 『中国朝鮮族の民族関係』 東京:アジア政経学会(2000).
林今淑, 李光哲. “中朝边境贸易的现况及其对边境地区社会经济的影响” 『东北呀论坛』(2004).
林金淑. “中朝边境贸易的现状及其对边境地区社会经济的影响.” 『延边大学学术会讨论文集』(2003), pp. 36－42. 2005.
中朝关系通史 编写组编.『中朝关系通史』. 吉林人民出版社(1989).
沈志华篇.『朝鲜战争:俄国档案馆的解密文件』. 台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2003.